

April 2026
No. 379

INSS

전략보고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최용환 · 김윤희 · 장세호 · 이성훈 · 안병욱 · 오일석

- I. 문제제기
- II. 전쟁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 III. 중동 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 IV. 중동 전쟁 이후 중동 내 정세와 안보 질서 변화
- V. 국방 · 군사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 VI. 중동 전쟁의 글로벌 경제 파장과 함의
- VII. 신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 VIII.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I. 문제제기

II. 전쟁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III. 중동 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IV. 중동 전쟁 이후 중동 내 정세와 안보 질서 변화

V. 국방·군사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VI. 중동 전쟁의 글로벌 경제 파장과 함의

VII. 신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VIII.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중동 전쟁과 글로벌 복합 위기: 평가와 시사점

저자 | 최용환 · 김윤희 · 장세호 · 이성훈 · 안병욱 · 오일석

국문 초록

본 보고서는 2026년 2월 28일 미국 ·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선제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정치, 군사, 경제, 신안보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전쟁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정치 · 군사 · 경제 · 신안보 차원에서 그 함의를 종합적으로 도출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제언한다. 첫째, 군사 안보 측면에서,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 고도화 △이를 담보 할 수 있는 군사혁신과 전력 체계 확보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에너지) 안보와 관련하여, △'에너지 믹스'의 재편 △공급망의 다변화 △가칭 '에너지안보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신안보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 홍보 · 교육의 강화 △AI 국제 규범 · 체계 논의 주도 △영향력 공작과 인지전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기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관점에서는 전쟁의 일상화와 동맹의 연루 · 방기 딜레마에 대응키 위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목표를 이를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동 전쟁의 파장을 고려해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을 2026년 하반기로 재설정하고 필요 여건을 조성해 가야 한다.

주제어: 미국, 이란, 중동 전쟁, 안보, 국제질서

I 문제제기

-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에 전격적인 대규모 선제 공습을 단행
 - 수십 년간 반복된 외교적 교착과 협상 실패 끝에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하 중동 전쟁)은 중동이라는 한정된 지역적 범위를 뛰어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심대한 파장을 초래
 -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은 국제법상 자위권 논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고, 기존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해체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다극적 혼돈의 시대'를 가속화
 - 중동 역내에서는 이스라엘과 걸프 국가들의 안보협력이 심화하는 반면, 이란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완전히 붕괴하지 않아 중동의 세력균형은 장기적 불안정 국면으로 발전
- 이에 본 보고서는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일별하고, △국제/중동질서 △국방·군사 △경제안보 △신안보적 관점에서 그 함의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함의를 도출
 - 전통적 국제/중동질서의 붕괴와 그 재구성, 에너지 공급망의 안보 자산화와 다극적 통화질서의 부상과 같은 지정학적 분절화에 주목
 - 이번 전쟁을 통해 나타난 현대 정규전 수행 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신안보 영역으로 확장된 실제적 위협의 실체를 세밀하게 고찰
 - 이를 토대로 향후 국제·중동질서와 한반도 안보·경제에 대한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II 전쟁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

1. 트럼프 2기 對이란 전략과 핵 협상 구도

가. 최대 압박 정책과 전략 인식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對이란 최대 압박 기조를 재강화해 금융 에너지 운송 분야 제재 확대하고 이란 정권을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 추진¹
 - 미국은 이란을 핵무기 보유 능력에 근접한 국가로 규정, △고농축 우라늄 비축 확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시험, △대리 세력 지원 지속을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대한 복합 위협으로 인식
 - 이스라엘은 이란 핵과 미사일 역량이 추가 축적될 때 방어 비용이 감당 불가능해지고 억지 균형이 이란에 유리하게 이동할 것으로 판단, 미국에 선제적 군사 옵션 검토를 거듭 촉구²

나. 2025년 핵 협상 재개와 구조적 교착

- 2025년 미국과 이란은 △고위급 협상 재개, △이란 핵 프로그램 추가 제한, △제재 완화,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를 포괄하는 새로운 합의 모색
 - 미국은 이란이 일정 기한 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 △비축분 축소, △강화된 국제 사찰 수용,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 제한, △대리 세력 지원 축소까지 포함하는 포괄 합의 요구³
 - 이란은 제재 해제와 체제 안전 보장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면서 핵 활동 일부 제한 및 투명성 강화에는 조건부 수용 가능성을 보임, 그러나 미사일 전력과 대리 세력 네트워크의 협상 의제 포함에는 강하게 반발
 - 이에 따라 협상은 핵 문제만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핵, 미사일, 그리고 역내 영향력을 일괄 타결할 것인지를 두고 반복적으로 충돌, 2025년 중반 이후 실질적 진전 없이 교착 상태 빠짐⁴

1 Dave Boyer, "Timeline at a Glance: From 2015 Iran Nuclear Deal to 2026 U.S.-Israel Military Operations," *The Washington Times* (March 2, 202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mar/2/timeline-glance-2015-iran-nuclear-deal-2026-us-israel-military/>

2 Marc Weller, "With Iran Attacks, President Trump Is Making the Use of Force the New Normal - and Casting Aside International Law," Chatham House (March 1, 2026), <https://www.chathamhouse.org/2026/03/iran-attacks-president-trump-making-use-force-new-normal-and-casting-aside-international>

3 Stephen Collinson, "Analysis: Trump's Iran Negotiations Face Deep Challenges Despite Renewed Talks," CNN (February 6, 2026), <https://edition.cnn.com/2026/02/06/politics/iran-us-negotiations-trump-analysis>

4 Katharine Jackson and David Brunnstrom, "A Look at the Long, Fraught Timeline of Iran Nuclear Tensions as Talks With U.S. Loom," *U.S. News & World Report* (February 24, 2026), <https://www.usnews.com/news/us/>

다. 2026년 초 협상과 군사 옵션 병행

- 2026년 2월 초 미국과 이란은 간접 협상 재개 후 이란 핵 활동 동결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절충안을 논의, 그러나 △핵 시설 해체 수준, △사찰 범위 미사일, △대리 세력 포함 여부에서 기존 견해 차이 그대로 유지⁵
 -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재개와 동시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시 군사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 발신하며 외교와 압박을 병행하는 이중 전략 구사
 - 이란은 평화적 핵에너지 권리와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유지 재확인, 미사일과 대리 세력을 체제 안전을 위한 핵심 억지 수단으로 간주해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려 시도
 - 미국 내부에서는 이란 문제를 단순한 비확산 사안이 아닌 중동 질서 재편, 미국의 신뢰 회복, 잠재적 정권교체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의제로 인식하는 시각 강화, 이에 따라 협상 실패 시 군사 행동이 현실적 선택지로 부상⁶

2. 전면전 발발과 초기 전개

가. 군사 행동 결정의 직접 계기

- 2026년 2월 말까지 진행된 간접 협상 시 핵심 쟁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외교 틀 안에서 이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
 - 양국 내 강경 진영은 이란이 협상 교착 상태를 활용해 핵, 미사일, 대리 세력 역량을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 시간이 지날수록 선제 행동의 비용은 증가하고 효과는 감소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선제 공습을 강하게 주장⁷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란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군사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대폭 약화하고 체제 핵심부를 압박하는 것이 향후 협상과 역내 질서 재편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 선제 공습을 결정⁸

articles/2026-02-24/a-look-at-the-long-fraught-timeline-of-iran-nuclear-tensions-as-talks-with-us-loom

5 Al Jazeera Staff, "US-Iran Talks Conclude With Claims of Progress but Few Details," *Al Jazeera* (February 26,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2/26/us-iran-talks-conclude-claims-progress-few-details>

6 Mark Mazzetti, Julian E. Barnes, Tyler Pager, Edward Wong, and Eric Schmitt, "How Trump Decided to Go to War With Iran," *The New York Times* (March 2, 2026), <https://www.nytimes.com/2026/03/02/us/politics/trump-war-iran-israel.html>

7 Miranda Jeyaretnam, "The U.S. and Israeli War With Iran, Explained," *TIME* (March 5, 2026), <https://time.com/7382631/iran-israel-us-war-explainer-trump-middle-east/>

8 Abi McGowan, Molly Carlough, and Natalie Caloca, "A Guide to Trump's Second-Term Military Strikes and

나. 2026년 2월 28일 공습과 이란의 인식

-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전 예고 없이 이란 본토를 대상으로 대규모 동시 공습 단행, △탄도미사일, △기지, △방공망, △지휘 통제시설, △군사와 정부 핵심 시설, △일부 핵 관련 시설 집중 타격
 - 공습에는 △전략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항모항공단,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자폭형 무인체계, △사이버 공격 동원, 초기 수일 동안 수백 발의 정밀 유도무기와 수백 회의 공격 비행이 수행된 것으로 평가
 - 이 과정에서 이란 최고지도자와 일부 고위 지도부가 피격으로 사망, 체제 핵심부가 직접 타격을 받으면서 이란은 이를 단순 억지 강화가 아닌 정권 전복을 겨냥한 전면 공격으로 인식
 - 미국과 이스라엘의 작전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 그리고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대폭 약화함으로써 향후 수년간 이란의 공세적 행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거⁹

다. 이란의 보복과 전선 확장

- 이란은 공습 직후 이스라엘 본토뿐만이 아니라 중동 전역, 미군 기지, 그리고 동맹국 핵심 시설을 공격하며 즉각 보복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및 부분 봉쇄, △일부 상선, 유조선 공격, 나포 위협, △지대함 미사일 운용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와 해상 물류의 핵심 연결 고리 직접 압박¹⁰

Ac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13, 2026), <https://www.cfr.org/articles/guide-trumps-second-term-military-strikes-and-actions>

9 Atlantic Council Experts, “Twenty Questions (and Expert Answers) About the Iran War,” Atlantic Council (April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twenty-questions-and-expert-answers-about-the-iran-war/>

10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 “Iran Update Special Report, March 27, 2026,” ISW (March 27, 2026), <https://understandingwar.org/research/middle-east/iran-update-special-report-march-27-2026/>

3. 전쟁 이후 미-이란 협상 재개와 협상 결렬

가. 협상 재개 필요성과 목표

- 전면전이 수주 간 지속되며 △호르무즈 봉쇄, △에너지와 물류 차질, △군사비 급증 등으로 인해 미국과 이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출구전략과 고위급 협상 재개 필요성 직면
 - 미국은 △이란 핵무기 보유 능력 영구 차단,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위협 축소, △이란 대리 세력 네트워크 약화,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는 포괄적 합의를 협상 목표로 설정¹¹
 - 이란은 △체제 안전 보장, △향후 미-이스라엘 군사 공격 금지, △제재 전면 해제,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 또는 재건 지원, △역내 영향력 유지, △호르무즈에서의 일정한 역할 인정을 새로운 정치와 안보 전략의 핵심 사항으로 제시¹²

나. 이슬라마바드 회담 틀과 주요 의제

- 파키스탄 등 중재국 주도로 이슬라마바드를 중심으로 미-이란 간 직간접 채널이 마련, 4월 초 양측은 2주간 정전과 이 기간 내 집중 협상을 하는 데 합의
 - 미국은 이 협상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 금지, △짧은 시간 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포기할 수준의 농축 제한, 그리고 △강화된 사찰에 명시적으로 동의할 것을 최우선 요구로 제시
 - 또한 △이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시험 제한,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 직접 위협 능력 축소, △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 축소,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을 단계적 제재 완화와 연계하는 구조 제안¹³
 - 이란은 △평화적 핵에너지 권리, △일정 수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유지, △체제 안전 보장, △제재 전면 해제, △전쟁 피해 보상, △역내 전면 휴전, △호르무즈에서의 역할 인정 등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협상 범위 확대

11 Zachary B. Wolf, "Analysis: Why the U.S.-Iran Talks Failed and What It Means for the War," *CNN* (April 11, 2026), <https://edition.cnn.com/2026/04/11/middleeast/us-iran-talks-failure-analysis-intl-hnk>

12 *ibid*

13 NPR Staff, "U.S. and Iran Fail to Reach Deal After Peace Talks in Pakistan," *NPR* (April 11, 2026), <https://www.npr.org/2026/04/11/nx-s1-5781760/pakistan-peace-talks-us-iran>

다. 4월 협상 결렬의 직접 원인과 현재 상태

- 4월 11~12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은 20시간 이상 마라톤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핵심 쟁점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없이 종료
 - 미국은 이란이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단기간 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포기한다는 명시적 합의 요구, 반면 이란은 자국 내 우라늄 농축 능력과 핵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태도 고수
 - 미국 대표단은 협상 종료 후 이란이 실질적 의미의 ‘핵무기 개발 능력 포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 점이 △휴전, △제재 완화, △전쟁 종식을 묶는 포괄 합의에 이를 수 없었던 핵심 이유였음을 강조¹⁴
 -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의 농축권을 전면 부정, △호르무즈 통제권과 역내 영향력 축소를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비판, △미국의 비현실적 요구와 강압적 태도가 협상 실패의 원인이라 주장
 - 이번 협상 결렬의 구조적 배경에는 미국이 2015년 핵 합의보다 더 강한 수준의 △핵, △미사일, △역내 활동 제한 요구, 반면 이란은 2015년 수준의 △평화적 핵 권리, △역내 영향력 유지, △기본적 체제 안전 보장 요구
 - 4월 12일, 미-이란 협상은 공식적으로 결렬된 상태, 양측 모두 상대가 최종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시 군사 행동 확대나 추가 제재 가능성을 열어둔 채 불안정한 정전과 긴장 관리 국면으로 진입

14 Gulf News Report, “US-Iran Ceasefire: Vance Says No Agreement With Iran After Historic Peace Talks in Pakistan,” *Gulf News* (April 12, 2026), <https://gulfnews.com/world/asia/pakistan/us-iran-ceasefire-vance-says-no-agreement-with-iran-after-historic-peace-talks-in-pakistan-1.500503998>

III 중동 전쟁의 국제정치적 함의

1. 미국의 국제적 권위와 리더십 축소

■ 독단적 개전 결정과 외교적 고립

-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국제적 지지 확보 없이 전격적·독단적으로 이란을 공격했고, 국제사회 전반에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 계산보다는 특유의 직관적·본능적 판단으로 전쟁 개시를 결정하고, ‘힘’에 대한 과신과 즉흥적인 위협·압박에 의존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 한다는 인상을 확대¹⁵
-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동맹국과 국제사회 전반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행동이 예측할 수 없고 자국의 안보·경제이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워싱턴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

■ 불명확한 전쟁 목표와 출구전략의 부재

- 트럼프 정부는 “임박한 위협”을 명분으로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의 파괴·약화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실제 전개 과정에서 이란 신정체제의 붕괴와 같은 체제 전복(regime change)적 성격의 목표를 추구
- 그러나 하메네이 참수 작전에 의한 정권교체 시도가 실패하고 오히려 이란 집권 세력이 결집해 저항·반격을 지속하는 상황은 미국의 이란 통치구조와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전략적 오판을 증명
- 무엇보다 “전쟁 목표의 완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GCC 국가들에 대한 공격(수평적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한 반격(국제 에너지 시장의 인질화)에 대한 미국의 효과적 출구전략 부재
 - ※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내 고농축 우라늄 강제 확보를 위해서는 대규모 특수작전부대(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나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정부가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작전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형편

15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개시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Jonathan Swan and Maggie Haberman, “How Trump Took the U.S. to War With Iran,” *The New York Times*, April 7, 2026을 참조.

■ 국제법 무용론의 심화와 규범적 권위의 상실

- 미국은 개전 결정을 유엔 헌장 상의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했으나, 민간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타격과 ‘문명 파괴’에 대한 위협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에 직면
 - ※ 트럼프 대통령의 4월 7일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은 △구별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 국제법과 국제인도법(IHL)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어 논란을 촉발
- 특히 미국의 이란 교량·발전소 등 이중용도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의 일방적 철수 시사와 이해 당사국의 해결 요구는 미국이 주장해 온 ‘규범 기반 외교’의 허구성을 방증
 - ※ 관련하여, 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전 회장은 이번 사태로 “무언가를 부수면, 이를 책임져야 한다” ‘포터 리 반 법칙’이 “우리가 부셨지만, 당신들이 책임지라”로 왜곡되게 됐다며 트럼프 정부에 대해 냉소적·비판적으로 논평¹⁶
-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법의 논리’를 압도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향후 다른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

■ 미국의 비예측성 심화와 국제적 신뢰 실추

-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무력 사용을 천명한 지 하루 만에 휴전에 합의하는 등 극단적인 정책 전환을 보인 것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일관성이 완전히 실종되었음을 의미
- 이러한 비예측성은 동맹국들에게는 안보 공약의 불확실성을, 적대국들에게는 협상의 허구성을 노출
- 국제사회는 미국의 약속이나 경고를 장기적인 전략적 신뢰의 관점이 아닌, 순간적인 거래의 관점에서 평가하게 됐고, 이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지탱하던 신뢰 자산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

16 David Ignatius, “The Iran War Is a Hostage Crisis,” *The Washington Post* (March 31, 2026),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03/31/iran-war-hostage-crisis/>

2. 미국의 동맹 정책 전환과 서방세계의 분열 가속화

■ 트럼프의 나토에 대한 불신과 탈퇴 위협의 재점화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국가들(수혜자)이 직접 군사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사안에 대한 유럽의 행동을 나토의 미래와 연계¹⁷
-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중동 전쟁에 군사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을 “실패”, “종이호랑이”, “겁쟁이들”로 규정하며, 이를 “기억하겠다”라며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
 -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 문제와 관련해 “물론이죠. 당연히 고려할 겁니다. 당신이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¹⁸
- 이 같은 행보는 소위 ‘그린란드 사태’와 함께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 특히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균열을 초래했고,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
 - ※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 ‘클러스터 17’이 폴리티코 등의 의뢰로 지난 3월 유럽 6개국 6,698명을 대상으로 한 對미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12%가 ‘가까운 동맹’, 반대로 그 3배인 36%가 ‘위협’이라고 대답¹⁹

■ 유럽 내 미군 재배치와 안보 공백의 공포

- 트럼프 정부는 중동 전쟁 과정에서 미국에 협조하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일부 철수 가능성을 시사
-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탈퇴 가능성 언급과 징벌적 성격의 유럽 주둔 미군의 재배치 구상은 동맹국들 사이에서 유럽 내 ‘안보 공백’ 확대와 동맹의 책임 ‘방기’(abandonment)에 대한 공포를 확산
- 유럽은 안보를 공동의 가치가 아닌 비용과 협력에 따른 유료 서비스로 취급하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이 동맹체제 자체를 파괴하고 러시아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우려 확대

17 Amy Mackinnon, “Donald Trump Struggles to Rally NATO Allies to Reopen Strait of Hormuz,” *Financial Times* (March 17, 2026), <https://www.ft.com/content/3e9c5b6a-6f4b-4a2d-9a6f-2b7c1f4d8e5f>

18 John Irish and Steve Holland, “Trump Threatens NATO Exit, Scaling Up Tensions With Allies,” *Reuters* (April 1,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trump-threatens-nato-exit-scaling-up-tensions-with-allies-2026-04-01/>

19 현윤경, “유럽인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위협,’” 연합뉴스 (2026년 4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9165400098>

- 핵우산 신뢰도 저하와 유럽의 독자 안보 노선 구체화
 - 트럼프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고 이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불신을 강도 높게 표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소위 ‘확장 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도 확대
 - 이 같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 확대는 유럽의 독자적 핵 억제력(Euro-deterrence) 보유 논의를 촉발·구체화하고 서방세계의 안보 체제를 다핵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목
 - 레오나르트 슈테 등의 전문가들은 “나토의 유럽화”(Europeanization of NATO) 담론 등을 통해 미국의 지원이 없는 상황(No America)에 대비한 나토의 전면적 개편을 제안²⁰
 - ※ 그는 “나토의 유럽 기둥”(European Pillar in NATO) 강화라는 기존의 수사를 뛰어 넘어 미국이 뒤로 물러날 경우, 유럽이 단순한 방위비 증액뿐만 아니라 NATO를 유럽 중심으로 운영하는 대규모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

3. 핵 비확산 체제의 위기 심화와 핵 도미노 자극

- 밴스 부통령의 핵 위협과 부정적 파장
 - JD 밴스 부통령은 이란에 대해 미국이 보유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발언을 해 논란을 촉발
 - ※ 밴스는 4월 7일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기로 한 적 없는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이를 미국의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인식²¹
 - 백악관의 사후 수습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핵무기 실제 사용국인 미국이 다시금 핵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핵 금기(Nuclear Taboo)’를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
 - 이는 러-우 전쟁 과정 중 러시아의 지속적인 핵무기 사용 위협과 함께 핵무기가 최후의 억제 수단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적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전 세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자극

20 Leonard Schütte, “The European Pillar in NATO: From Hollow to Concrete,” Heinrich Böll Foundation (March 2026),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2026-03/boell-paper_the-european-pillar-in-nato.pdf

21 민경락, “美부통령 ‘이란 안바꾸면 사용한 적 없는 수단 쓸 수도,’” 연합뉴스 (2026년 4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60351109>

- 국제법상 자위권의 자의적 해석과 비핵국가들의 핵 보유 욕망 증대
 - 미국이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자위권으로 정당화하는 논리는 역설적으로 다른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핵 시설을 선제공격하거나, 공격받기 전에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화
 - 이는 NPT 체제가 근거하고 있는 ‘핵보유국의 성실한 군축 의무’와 ‘비보유국의 평화적 이용 권리’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로 인식될 가능성 다대
 - 중동 전쟁을 통한 이란과 북한 사례의 대비는 자체 핵 억제력의 보유 필요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따라 잠재적 핵보유국들이 자강론 차원에서 독자 핵무장을 더욱 강하게 추진케 하는 동력으로 작용

4. ‘통제불가의 다극적 혼돈’과 ‘신 강대국 협조체제’의 등장 가능성

- CRINK와 글로벌사우스의 결속력 한계 노출
 - 서방세계의 분열과 함께, 전쟁 초기 중립의 대응은 수사적 차원의 對이란 지지, 對미 비난에 그쳤을 뿐 소위 반미전선 축(Axis of Upheaval)의 핵심 국가인 이란에 대한 실질적인 군사적 지원을 미제공
 - 중국과 러시아는 △지원 여력의 부족 △중동 지역 개별국가들과의 이해관계 △미국과의 정면충돌에 대한 우려 등의 복합적 이유로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대신 중재자의 역할에 주력
 - 중립이 주도해 온 BRICS/SCo 등 비서방 국제기구도 회원국인 이란의 피공격 상황에도 개별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별도의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등 글로벌사우스의 결속력 한계를 표출²²
- ‘신냉전’ 담론의 논리적 한계와 취약성 현시
 - 신냉전(New Cold War) 담론은 미국의 경향적 패권 축소와 국제체도의 무력화 속에서 21세기 국제 정세가 과거 미소 냉전과 유사한 수준의 전략적 경쟁과 진영 간 대립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 틀
 - 그러나 이번 중동 전쟁은 소위 ‘민주주의 對 권위주의’, ‘서방세계(GW) 對 反서방세계(GE)’의 이분법적 진영 논리, ‘진영 내 결속’, ‘진영 간 적대’의 냉전 문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방증
 - 중동 전쟁은 신냉전 담론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21세기 국제관계 설명하기에 ‘지나치게 단순하고 지적으로 게으른 비유’이며 이분법적 논리가 붕괴되고 있음을 현시

22 C. Raja Mohan, “BRICS Meets Reality in the Middle East War”, Foreign Policy (March 16, 2026), <https://foreignpolicy.com/2026/03/16/brics-middle-east-war-reality/>

- ‘통제 불가의 다극적 혼돈’(Unmanageable Multipolar Chaos)의 시대 진입
 - 지금 시기는 미국이 더 이상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주요 강대국 간 경쟁에서 게임의 규칙이 파괴된 시대이며, 각기 다른 동기를 가진 행위자들이 충돌하며 예측 불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상태
 - 과거 냉전이 미소라는 두 극점으로 수렴했다면, 지금은 ‘서방’ 내부에서도 미국과 유럽이 분열하고, 非(反)서방내부에서도 각국의 이해관계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통제 불가의 다극적 혼돈의 시대²³
 - UN 안보리 등 국제제도의 마비로 인해 국제법은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의 수단’로 전락했고, 매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비대칭적 억제력’을 추구하는 각자도생을 상시화
 - ※ 결국, ‘다극화된 혼돈’ 속에서 “우리가 알던 질서는 돌아오지 않으며, 이제는 질서가 없는 상태 그 자체를 관리(Managing the Unmanageable)해야 한다”라는 비관적이고 극도의 난이도를 가진 과제만 대두

- 이 같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세계는 중국의 ‘전국시대’처럼 권력의 중심이 이동하고 재편되는 거대한 재구성 과정을 겪어 나갈 전망
 - 최근 19세기 ‘유럽협조체제’의 21세기 판 버전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미중러 3국 등 소수 강대국이 기존의 G7 체제를 대체해 세계의 주요 현안을 공동 관리한다는 것이 동 담론의 주요 골자
 - 이 같은 ‘신 강대국 협조체제’는 상호 ‘세력권’(과거보다 느슨하고 비정형의)을 인정함으로써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고, 정의와 인권 등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안정(세력균형)과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작동할 전망
 - 동 국제체제는 중국의 ‘전국시대’에 견주어질만하며, 한국을 비롯한 다수 중견국·약소국들에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선택을 강제할 수 있는 새롭고도 거친 대외환경으로 작용

23 Munich Security Conference, “Under Destruction,” Munich Security Report 2026 (February 2026), <https://securityconference.org/en/publications/munich-security-report-2026/>; Leonard Schütte, “The European Pillar in NATO: From Hollow to Concrete,” Heinrich Böll Foundation (March 2026), <https://www.boell.de/en/2026/03/european-pillar-nato-hollow-concrete>

IV 중동 전쟁 이후 중동 내 정세와 안보 질서 변화

1. 저항의 축 약화

- 이번 전쟁 이후 이란을 비롯한 ‘대리 세력 네트워크’는 군사적 손실로 역량은 축소했고, 작전 제약 심화로 결속력 약화
 - 대리 세력(헤즈볼라, 후티, 하마스 등)은 이란이 요구하는 지침보다 내부 정치 및 조직 보존을 우선하는 경향을 견지하며, 따라서 이란은 기존 네트워크 체제를 재건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통합적 통제력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예상
- 대리 세력의 약화는 이란의 역지 전략 전반에 공백을 만들었으며 이것이 역내 세력균형 재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
 - 대리 세력의 작전 공간이 축소되면서 이란이 비대칭 전력을 역내 전방위로 분산 투사하는 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이란의 영향력 확장 여지가 축소되었다는 평가가 우세²⁴
 - 저항의 축 내부 결속 약화와 비국가 행위자들의 자율성 증대는 이란의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무장 세력 또는 극단주의 조직의 부상을 자극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이란 질서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는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 이란의 역내 영향력 구조 약화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전선에서 긴장 완화 효과를 가져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세력 재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 축이 형성될 가능성 내포²⁵

2. 이란 체제 전환 이후 미국과의 핵 협상

- 이란은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 아래에서 대외 강경 노선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며, 향후 미국-이란 핵 협상 향방도 이러한 내부 권력 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
 - 모스타바의 초기 발언과 IRGC 지휘부의 성명은 호르무즈 해협과 미사일 및 드론 역량을 전략적 압박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 강조, 일정 기간 고강도 대응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 피력
 - 이란 외교부는 미국과의 휴전 및 핵 협상 과정에서 제재 전면 해제와 역내 미군 철수를 포함한 강경한 요구 조건 제시, 이는 단기 협상 타결보다는 내부 결속 강화와 국제 여론전을 겨냥한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이 지배적²⁶

24 Hussain Abdul-Hussain, “Iran’s Proxy Network Weakens—but Remains Dangerous”, The Hill (April 14, 2026),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5756940-iran-proxy-network-weakens/>

25 Bernard Haykel, “The Implications of Iran’s Failed Proxy Strategy”, Hoover Institution (December 10, 2024), <https://www.hoover.org/research/implications-irans-failed-proxy-strategy>

- JCPOA 체제의 사실상 소멸과 IRGC 주도 강경 체제의 결합으로 핵 협상의 실질적 진전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역내 핵 확산 압력이 새로운 구조적 위협으로 부상
 - 미국은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 중단(또는 장기 중단)과 △핵무기 불보유 약속, △고농축 우라늄 반출 및 IAEA 사찰, △주요 핵시설 폐기, △탄도미사일·대리 세력 문제를 포괄하는 합의 요구
 -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 △제재 전면 해제, △중동 내 미군 전투 병력 철수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 요구를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 차이가 협상 진입과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용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내 주요국이 △민감 기술 확보, △평화적 핵 프로그램 확대 등 이른바 ‘핵 옵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흐름이 감지, 이란의 핵 재건 시도 여부와 맞물려 역내 핵 도미노 리스크가 중장기 안보 의제로 부상하는 양상 보임²⁷

- 미국과 이란은 제3국을 매개로 휴전과 핵 패키지 논의를 반복, 그러나 △핵 포기, △제재 해제, △미군 철수를 둘러싼 최소 요구 조건의 견해차가 여전히 큰 만큼 단기간 내 포괄적 합의보다는 부분적 동결 또는 완화 조치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우세²⁸
 - 미국의 핵전략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동시에 고려하는 억지 또는 관리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이란 핵 문제 역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확산 관리와 위기 억지’ 프레임 속에서 다뤄질 가능성 농후
 - 이란 핵 문제는 △중동 역내 국가들의 핵 옵션 논의,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옵션, △러시아와 중국의 對이란 협력 등과 맞물려 중동 핵질서 전반을 복합적 갈등과 관리 공백이 증첩된 불안정 구조로 심화시킬 가능성 큼

26 Rebecca Schneid, “Why Iran’s ‘Selective’ Closure of the Strait of Hormuz Matters”, TIME (April 7, 2026), <https://time.com/article/2026/04/07/strait-of-hormuz-countries-pass-deals-iran-us-war-trump/>

27 Al Jazeera Staff, “US-Iran Ceasefire Talks: What Are the Key Sticking Points?”, Al Jazeera (April 12,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4/12/us-iran-ceasefire-talks-what-are-the-key-sticking-points>

28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and Iran Make Indirect Contact on Potential Talk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24, 2026), <https://www.cfr.org/articles/u-s-and-iran-make-indirect-contact-on-potential-talks>

3. 걸프국의 전략적 중립 약화와 안보 자율성 강화

-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을 공동 위협으로 간주하는 이스라엘-걸프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의 제도적 틀을 제공했으나, 가자 전쟁과 이번 중동 전쟁을 거치며 ‘평화와 협력 프레임’보다는 ‘對이란 군사와 안보 전략 플랫폼’으로 성격 강화²⁹
 -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인근 인프라를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 알우데이드(카타르), 알다프라(UAE), 바레인 제5함대 사령부 등 걸프 내 미군 시설이 직접 타격 대상
 - 이에 따라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는 △방공망 고도화, △해군력 증강, △자국산 방산 육성 등 자주국방 역량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 조정, GCC 차원의 공동 방위 체계 구축 논의도 재가동³⁰
- 걸프 국가들은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심화하는 반면, 이스라엘과의 공개적 연대에는 거리를 두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며 역내 안보 구도의 복잡성을 키움³¹
 - 걸프 국가들은 미사일 요격과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군사 협력을 미국과 확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의 군사적 헤게모니 추구 노선은 걸프 국가들이 지향하는 외교 및 경제 중심의 지역 질서 구상과 충돌하는 양상 보임
 -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 형성되었던 이스라엘-걸프 협력 프레임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문제 처리 방식과 對이란 전면전 수행 방식에 대한 걸프 국가들의 불만이 누적, 정치적 정당성과 사회적 기반 측면에서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
 - GCC 내부에서도 오만과 카타르는 對이란 전면 대결보다는 외교적 완충과 중재 역할을 선호하는 노선 유지, 걸프 집단안보 체제의 실질적 응집력에는 내재적 한계 존재

29 Khalid Al-Jaber, “The Limits of Neutrality for Gulf States in the U.S.-Israel-Iran War”,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March 10, 2026), <https://mecouncil.org/publication/limits-gulf-neutrality-us-israel-iran-war/>

30 Andrew Leber and Sam Worby, “Three Scenarios for the Gulf States After the Iran Wa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16, 2026),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4/gulf-states-gcc-iran-war-three-scenarios>

31 Steven A. Cook, “Four Things the Gulf States Will Expect From the United States After the Iran War”, Foreign Policy (March 24, 2026), <https://foreignpolicy.com/2026/03/24/gulf-states-united-states-iran-trump-war>

4. 중동 내 세력 재편과 이스라엘

-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집트-파키스탄을 축으로 한 중견국 외교 블록이 가시화되며 역내 질서 재편의 핵심 행위자 중 하나로 부상³²
 - 이 연대는 아직 고정된 동맹 블록이라기보다는 이란 전쟁 대응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일시적으로 수렴한 느슨한 협의체에 가까우며 향후 위기와 이익 구조에 따라 결속 수준이 달라질 여지가 큼
 - 이 4개국은 파키스탄의 중재 채널을 통해 미-이란 휴전 협상에 관여, 이란과 이스라엘 모두 역내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구도 속에서 대안적 중재자 역할자임
 - 핵 보유(파키스탄), 세계 2위 석유 매장량(사우디), 수에즈 운하 통제(이집트), NATO 회원국(튀르키예) 등 전략 자산을 보유하며 상호 보완적 연대 기반을 갖추
 - 특히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간 관계 복원을 발판으로 중동-아시아 경제와 물류 회랑 구상 등 지경학적 연계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외교적 존재감 확대
- 시리아는 이란 영향력 후퇴 이후 터키-걸프 국가 간 재건 경쟁의 무대로 부상, 이 과정이 역내 새로운 세력 배치를 구체화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음
 - 튀르키예와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아사드 시리아의 안정화와 재건에서 안보, 군사, 재정, 인프라를 분업하는 협력 구도 모색, 걸프 자본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리아 진출을 확대하는 움직임 보임³³
 - △쿠르드계 시리아민주군(SDF) 문제를 둘러싼 튀르키예와 미국 간 노선 차이, △극단주의 세력 재부상 리스크 등은 시리아 안정화의 구조적 불확실성으로 잔존, 이는 튀르키예와 걸프 주도의 지역 재편 구도가 시험대에 오른 상태임을 의미
 - 시리아 재건의 성패는 역내 세력 재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주요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조율 여부가 안정화의 핵심 변수로 부각 될 전망³⁴

32 Natasha Lindstaedt, "Pakistan, Turkey, Egypt and Saudi Arabia Appear to Be Emerging as New Regional Power Bloc", The Independent (April 8, 2026),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pakistan-saudi-arabia-egypt-turkey-gulf-allies-power-b2953884.html>

33 Pinar Dost, "Syria's Rebuilding Is Bringing US Partners Turkey and Saudi Arabia Closer Together", Atlantic Council (February 20, 2025),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turkeysource/syrias-rebuilding-is-bringing-us-partners-turkey-and-saudi-arabia-closer-together/>

34 Al Jazeera Centre for Studies, "In the Wake of the War on Gaza: Shifts in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iddle East", Al Jazeera Centre for Studies (December 21, 2025), <https://studies.aljazeera.net/en/policy-briefs/wake-war-gaza-shifts-balance-power-middle-east>

5.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해양 안보의 전략 전장화

- 전쟁을 거치며 호르무즈 해협 일대가 글로벌 에너지 물류의 병목을 넘어 역내 안보 질서의 핵심 전장으로 재규정, 이 해역을 둘러싼 상시적 긴장 고조가 유지되는 추세
 -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위협과 인근 해역에서의 상선과 유조선 공격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해상 물류 전반에 실질적 충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입증, 이를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전쟁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 큼³⁵
 - 이에 대응해 미국, GCC,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사안별 다국적 해상안보 협력체가 반복적으로 구성, 고정된 동맹이 아닌 위협 유형에 따라 참여국 구성이 달라지는 다층 레짐으로 재편되는 추세
 - 홍해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둘러싼 후티의 개입 가능성도 상존, 호르무즈에서 홍해에 이르는 중동 해양 전체가 단일한 전략적 긴장 벨트로 연결되는 구조 형성
- 해양 안보의 전략적 중요성 부상은 역내 국가들의 안보 투자 방향과 대외 협력 구조 전반을 재편하는 압력으로 작용
 - 걸프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 투자는 이란에 대한 억지뿐 아니라 비이란계 역내 행위자들에 대한 경계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이는 효과로도 작용, 역내 군비 경쟁의 새로운 축으로 작동할 가능성 큼
 - 호르무즈-오만만-아라비아해로 이어지는 해역이 미-중 전략 경쟁의 간접적 접촉면으로 부상, 이 해역에서의 해상안보 협력 구도는 향후 역내 대외 전략 정렬의 중요한 가능자가 될 전망³⁶

6. 중동 국가들의 협력 다변화 전략

- 전쟁 이후 중동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와 인프라는 중국, △일부 외교와 방산은 러시아 및 유럽과 병행하는 다방향 전략 노선을 한층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군사력 투사와 동맹 네트워크 측면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내 행위자임을 재확인, 그러나 전쟁 결정 과정과 운용 방식을 둘러싼 국제적 불신이 걸프 국가들의 對미 의존 방식을 재조정하는 계기로 작용

35 Pnina Sharvit Baruch, "The Strait of Hormuz as a Key Theater of War—The Legal Aspect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March 29, 2026), <https://www.inss.org.il/publication/hormuz-legal/>

36 Samantha Gross, Caitlin Talmadge, and Melanie W. Sisson, "Why Iran's Disruption of the Strait of Hormuz Matters", Brookings Institution (March 19, 202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why-irans-disruption-of-the-strait-of-hormuz-matters/>

-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등 非GCC 중견국들의 중재 외교 역할이 확대되면서 역내 안보 질서가 미국 단극 체제에서 다층적 행위자 구조로 분산되는 경향 가속화
 - 파키스탄이 미-이란 휴전 중재에 관여하고 튀르키예가 독자적 외교 채널을 가동하면서 미국 주도의 일원적 역내 관리 구조가 균열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제기³⁸
 - 이는 향후 역내 분쟁이나 외교 협상에서 복수의 중견국이 경쟁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역내 질서의 다극화가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37 Steven, 2026.

38 Bel Trew, "Pakistan, Saudi Arabia, Egypt and Turkey: The New Power Axis Emerging From the Gulf Crisis", The Independent (March 24, 2026), <https://www.independent.co.uk/news/world/middle-east/pakistan-saudi-arabia-egypt-turkey-gulf-allies-power-b2953884.html>

V 국방 · 군사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1. 미국과 이란의 군사전략

가. 미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실제 운용

- 1단계(2/28~3/3): 충격 · 마비형 복합 정밀타격으로 개전 후 72시간 내 이란군 지휘부, 방공망, 탄도미사일 거점 등 1,700여 개 표적에 대한 고강도 집중 타격
- 2단계(3/4~3/16): 지속 타격과 역내 방어의 병행으로 이란 방공망 무력화 이후 B52 폭격기의 중심 타격 수행 및 THAAD · Patriot 시스템을 공식 운용하는 등 공세 · 방어 동시 수행³⁹
- 3단계(3/17~): 해상교통전 비중 확대 및 군사 · 외교전 병행으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부상하면서 해상작전 비중 확대 및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정치적 종결 조건 공방이 동시에 전개

나. 이란의 군사전략 개념과 실제 운용

- 저가형 샤헤드(Shahed) 드론을 선제 투사하여 방공 레이더 포화 및 고가 요격탄 소모를 유도한 후 탄도미사일을 투입하는 복합 전술을 운용 중이나, 개전 초기에 비해 미사일 발사 주기가 둔화하는 추세⁴⁰
- 상선 공격과 기뢰 부설을 통한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봉쇄를 시도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삼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억제하고,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비대칭 공세형 거부 전략 전개
- 정규전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헤즈볼라와 후티 등 대리 세력을 동원한 다각적 비대칭 전선을 형성함으로써,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전쟁 비용을 극대화하는 '회색지대 도발 및 대리전쟁' 전략을 구사

39 U.S. Department of Defense, "Operation Epic Fury Fact Sheet," U.S. Department of Defense (March 3, 2026), <https://media.defense.gov/2026/Mar/03/2003882557/-1/-1/1/OPERATION-EPIC-FURY-FACT-SHEET-260303.PDF>

40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of America, "Iran's Missile Launches Have Fallen Sharply Since Start of War, Data Shows",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of America (March 10, 2026), <https://jinsa.org/irans-missile-launches-have-fallen-sharply-since-start-of-war-data-shows/>

2. 국방 · 군사적 관점에서 평가

가. 전쟁 수행 방식의 특징

- 고강도 선제타격을 통한 '공세적 주도권' 확보 및 지속 압박
 - 개전 초기 1,700여 개 표적에 대한 고강도 선제타격으로 이란의 조기 대응 능력을 무력화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세를 유지하여 이란이 전력을 재편 · 복원할 시간을 차단하는 '지속 압박 전략' 구사
 - 이는 이란에 결정적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는 공세적 주도권 유지 전략으로, 이란의 전쟁 지속 의지를 물리적 · 심리적으로 압박
- 이란의 회색지대 전략과 대리전(Proxy War)의 혼합
 - 이란은 정규전 열세를 보완하기 위해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정규전과 정규전이 혼합된 복합전 양상을 전개
 - 대리 세력들은 '생존 모드'로 재편되어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등 복수의 전선에서 동시 활동하며 미군 및 역내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분산
 - 이는 이란이 직접 충돌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 부담을 광역화하는 전형적 회색지대 전략으로 평가
- 군사적 타격과 비군사적 수단이 결합된 '하이브리드전' 및 인지전 전개
 - 이란은 물리적 타격과 함께 사이버 공격 · 심리전 · 정보전을 복합 구사하며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전개
 - 미국 측 역시 민간인 대상 안전 경고 발령 등 정보 작전을 병행하여 이란 내부 여론 분열 및 민심 이탈 유도 시도⁴¹
- 저비용 공세에 대응하는 '방어 가성비' 확보 및 효율적 요격 체계 구축 필요성의 부각
 - 저가 드론 · 미사일의 대량 투사가 고가 요격 체계를 재정 · 재고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소모 강제' 전략이 현대전의 핵심 비대칭 수단으로 확립
 - 고가 정밀유도탄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저비용 소모 가능 무기체계(LUCAS형 자폭드론 등)와 고가 정밀타격 수단의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 전력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
 - 탄약 및 포탄 생산 기반(방산 공급망)의 평시 확충이 전쟁 지속 능력의 핵심 변수임을 실전으로 확인

41 U.S. Central Command, "U.S. Forces Issue Safety Warning to Civilians in Iran", U.S. Central Command (March 8, 2026), <https://www.centcom.mil/MEDIA/PRESS-RELEASES/Press-Release-View/Article/4428134/us-forces-issue-safety-warning-to-civilians-in-iran/>

나. 무기체계 및 전장 혁신

- 첨단 무기체계 및 재래식 무기체계의 복합 운용
 - 스텔스 폭격기(B-2), 5세대 전투기(F-35/F-22), 재래식 폭격기(B-1/B-52), 전자전기(EA-18G), Tomahawk 순항미사일의 통합 운용으로 이란 통합방공망체계 조기 무력화
 - 이번 전쟁을 통해 최초 실전 투입이 공식 확인된 LUCAS(Low-Cost Unmanned Aerial System) 자폭드론은 저비용·고효율의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하며 현대전의 비대칭 전력 운용 패러다임을 변화⁴²
 - 개전 초 100시간 동안 작전 비용이 약 37억 달러로 추산되어⁴³ 고가 정밀무기 중심 전력구조의 소모전 지속 가능성 한계를 노정
 - 미 핵추진 잠수함의 이란 함정 격침은 2차 대전 이후 잠수함 대 수상함 전투의 첫 실전 사례로서, 핵잠수함의 전략적 타격 자산으로서의 효용성을 극적으로 입증⁴⁴

- 이란의 '대규모 복합 타격' 전개와 비대칭 전력의 핵심 수단화
 - 이란은 탄도미사일(중·장거리 계열), 순항미사일, 자폭형 드론(샤헤드 등)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 공격을 전개하여 비대칭 전력이 현대 정규전의 핵심 수단으로 전면화
 - 개전 4일간 이란은 50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2,000여 기의 공격드론으로 이스라엘·UAE·바레인·카타르 등 표적에 동시 투사
 - 저가 드론으로 방공 레이더를 포화시키고 고가 요격미사일을 소모시킨 뒤 탄도미사일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어측에 비대칭적인 재정 부담을 강제

42 J.D. Simkins, "U.S. Confirms First Combat Use of LUCAS One-Way Attack Drone in Iran Strikes", *Military Times* (February 28, 202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6/02/28/us-confirms-first-combat-use-of-lucas-one-way-attack-drone-in-iran-strikes/>

43 Mark F. Cancian and Chris H. Park, "\$3.7 Billion: Estimated Cost of Epic Fury's First 100 Hou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rch 5, 2026), <https://www.csis.org/analysis/37-billion-estimated-cost-epic-furys-first-100-hours>

44 J.D. Simkins and Riley Ceder, "US Submarine Sinks Iranian Ship in First Torpedo Kill Since WWII, Pentagon Confirms", *Military Times* (March 4, 202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6/03/04/us-submarine-sinks-iranian-ship-in-first-torpedo-kill-since-wwii-pentagon-confirms/>; 026년 3월 4일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 미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 잠수함 USS 샬럿(USS Charlotte)함이 이란 해군의 호위함 '아이리스 데나(IRIS Dena)'를 어뢰로 공격하여 격침

- 다층 방공망의 실효성 검증 및 방공 미사일 생산 공급망의 한계⁴⁵
 - 이스라엘은 Arrow-3, David's Sling, 아이언 돔 등 다층방어체계를 가동하였으나, 디모나(Dimona) 핵시설 및 아라드(Arad) 지역을 겨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해서는 일부 요격 실패
 - 미국은 THAAD·Patriot를 걸프 국가 방어에 투입하였으며, THAAD의 이란 탄도미사일·드론 요격률은 약 90%로 평가
 - 개전 초 4일간 미군 Patriot 포대가 발사한 요격미사일 943발은 Lockheed Martin·Boeing 연간 생산량의 18개월치에 해당하며, THAAD 재고의 약 1/3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
 - ※ 재고 보충에 3~8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방어체계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전략적 과제로 부상
- 전자전(EW) 및 우주 기반 정찰감시의 역할 확대
 - 물리적 타격 이전에 전자기 환경을 선제 장악하는 '억제-교란-타격'의 작전 순서가 다영역전의 표준 패턴으로 정착⁴⁶
 - 미 우주군의 위성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는 이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의 실시간 탐지 및 정밀 표적화(Targeting)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
 - Maxar, Planet Labs 등의 상업 위성 영상이 핵 시설 피해 평가 등에 활용되어 '상업 우주 자산의 전장화'라는 현상이 가시화

3. 장기 전쟁 지속능력 평가

가. 미국

- 군수·탄약 재고 및 소모율
 - 개전 전 THAAD 534발·SM-3 414발을 보유하였으나⁴⁷, 개전 16일간 THAAD 약 40%, ATACMS·PrSM 약 46%를 소모한 것으로 추산⁴⁸
 -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개전 4주간 850발 이상을 발사하였는바, 이는 역대 최다 소모로 전체 재고(약 4,000발)의 약 21% 소진⁴⁹

45 The Jerusalem Post, "US Interceptor Stockpiles Depleted by Iran War, Could Take Years to Rebuild," *The Jerusalem Post* (March 25, 2026), <https://www.jpost.com/defense-and-tech/article-891130>

46 Carley Welch, "How Cyber Command Contributed to Operation Epic Fury Against Iran", Nextgov/FCW (March 2, 2026),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26/03/how-cyber-command-contributed-operation-epic-fury-against-iran/411818/>

47 Wes Rumbaugh, "The Depleting Missile Defense Interceptor Inventor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December 5, 2025), <https://www.csis.org/analysis/depleting-missile-defense-interceptor-inventory>

■ 방위산업 생산능력

- Lockheed Martin은 2026년 1월에 THAAD 연간 생산량 96발→400발의 확대 기본협정을 체결 하였으나, 실질 물량 인도까지 3~4년 소요 예상⁵⁰
- RTX(Raytheon)의 PAC-3 MSE는 연 600발→2,000발 확대 목표이나 완전 달성까지 7년 소요 전망⁵¹
-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갈륨(~95%)· 게르마늄(~80%) 등 핵심 광물은 중국이 2024년 12월 전면 수출금지 조치한 상태로 요격체계 핵심 반도체·레이더 부품 생산의 차질 위험성 내재

■ 정치·전략 딜레마

- 개전이 의회 승인 없이 개시되었으며, 이는 미 전쟁부가 요청한 2,000억 달러 추경예산 확보의 법적·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⁵²
- 항모 3척(CVN-72·77·78)의 중동 동시 배치 및 타지역 방공체계가 중동전에 전용됨에 따라 서태평양 억제력 공백 발생⁵³

48 George Headley, "U.S. Missile Supply Stressed by Iran War", *Cronkite News* (March 27, 2026), <https://cronkitenews.azpbs.org/2026/03/27/missile-stockpile-depleted-iran-war/>

49 Defense Express, "Over 850 Tomahawks in Month: U.S. Faces Rapid Depletion of Cruise Missile Stockpiles", *Defense Express* (March 29, 2026), https://en.defence-ua.com/analysis/over_850_tomahawks_in_a_month_us_faces_rapid_depletion_of_cruise_missile_stockpiles-17991.html

50 Lockheed Martin, "Framework Agreement to Quadruple THAAD Interceptor Production Capacity", Lockheed Martin (January 29, 2026), <https://news.lockheedmartin.com/2026-01-29-Lockheed-Martin-Agreement>

51 RTX, "Raytheon Partners With Department of War on Five Landmark Agreements", RTX (February 4, 2026), <https://www.rtx.com/news/news-center/2026/02/04/rtxs-raytheon-partners>

52 Noah Robertson, Jeff Stein, and Riley Beggin, "Pentagon Seeks More Than \$200 Billion in Budget Request for Iran War", *The Washington Post* (March 18, 2026),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6/03/18/iran-cost-budget-pentagon/>

53 Eve Sampson, "Iran War May Force US to Shift Missile Defenses From South Korea, Seoul Says", *Military Times* (March 11, 202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6/03/11/iran-war-may-force-us-to-shift/>

나. 이란

■ 군수 · 탄약 재고 및 소모율

- 개전 전 MRBM급 약 2,000발, SRBM급 약 6,000~8,000발, Shahed 드론 수천~1만 대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⁵⁴
- 개전 10일까지 미사일 발사량 1일 차 대비 90%, 드론 공격 83% 감소하였는바⁵⁵, 이는 실재고 소진과 전술적 요인의 복합 결과

■ 방위산업 생산능력

- 핵심 강점으로 전문 인프라 없이 소규모 작업장에서 드론과 부품을 생산하여 미국 측의 드론생산 시설 공격 효과를 제한
- 러시아 Alabuga(엘라부가) 경제특구를 통해 월 5,500대 이상 Shahed형 드론 생산 중인 것으로 추정⁵⁶

■ 동맹자원

- 중국 · 러시아 · 이란의 제재 우회 공급망 구축을 통해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약 90%를 흡수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국으로 작용⁵⁷
- ‘저항의 축’ 대리 세력이 이라크 · 예멘 · 레바논 등 복수 전선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비대칭 반격 능력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

54 Ari Cicurel et al., “Iran’s Missile Firepower Has Almost Run Out”,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of America (March 5, 2026), https://jinsa.org/jinsa_report/irans-missile-firepower-has-almost-run-out/

55 U.S. Central Command, “Briefing on Operation Epic Fury”, U.S. Central Command (March 5,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cPf4ziADfxQ>

56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 Closer Look at the Yelabuga UAV Factory,” CSIS Beyond Parallel (March 2026), <https://beyondparallel.csis.org/a-closer-look-at-the-yelabuga-uav-factory/>

57 USCC, “China-Iran Fact Sheet: A Short Primer on the Relationship,”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March 16, 2026), <https://www.uscc.gov/research/china-iran-fact-sheet-short-primer-relationship>

VI 중동 전쟁의 글로벌 경제 파장과 함의

1. 지정학적 충격의 글로벌 경제 파급 영향

- 이번 중동 전쟁은 중동 정치 불안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원자재, 식량, 경제 시스템 전반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핵심 자원의 무기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재점화와 함께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분절화를 가속하는 변곡점⁵⁸
- 과거에도 전쟁은 경제구조를 바꿔왔지만, 이번에는 에너지, 금융, 통화가 동시에 재편되는 복합적인 질서 변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 경제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⁵⁹

가. 지정학적 충격의 발원 : 글로벌 에너지 초크포인트의 마비

- 중동 전쟁의 가장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충격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위협에서 비롯
 - 우회로가 극히 제한적인 호르무즈 해협의 특성상, 이 지역의 지정학적 충격은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유발
 -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전쟁이 3개월 지속되고 이란의 하르그섬 등 생산시설에 장기적인 피해 발생 시 전 세계 원유 및 LNG 수출량의 8~9%가 손실되고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로 치솟을 것이며 이러한 충격 시나리오는 70년대 후반 에너지 쇼크 사례가 유일하다고 평가
 - KIEP는 전쟁이 조기 종식되더라도 2027년 말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하고, 최악의 경우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4.2)

58 연합뉴스, “IEA 사무총장 ‘이란 전쟁,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 연합뉴스 (March 21, 2026),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1016900009>

59 World Economic Forum, “Iran Conflict Disrupts Oil and Gas Supply - and More Top Energy Stories,” World Economic Forum (March 20, 2026),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3/iran-conflict-disrupts-oil-and-gas-supply-top-energy-stories-march-2026/>

-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3.2) 이래 하루 약 1,5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페르시아만에 묶이면서 국제 유가 폭등, 물류 우회 등으로 전 세계 일일 약 204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 발생⁶⁰
 - 이란의 물리적 봉쇄와 함께 해상보험료 폭등, 보험 인수 거절 등 런던 보험 시장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봉쇄’가 작용
 - 선박들이 장기간 해상 대기하거나 다른 항로로 우회하면서 막대한 연료비와 시간비용이 해상운임에 반영되어 전례 없는 운임폭등 발생⁶¹
 - 골드만삭스는 펀더멘탈 대비 배럴당 최소 14달러 이상의 ‘전쟁 프리미엄’이 시장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으며 한국무역협회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시 해상운임이 최대 80%까지 상승 전망
 - 무엇보다 “전쟁 목표의 완수” 선언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GCC 국가들에 대한 공격(수평적 확산)과 호르무즈 해협을 활용한 반격(국제 에너지 시장의 인질화)에 대한 미국의 효과적 출구전략 부재
 - ※ S&P 글로벌 코모디티 인사이트는 수에즈운하, 홍해 통항 기피 및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에 따른 리드타임 증가(+14일) 분석(3.18)
 - 유엔개발계획(UNDP)은 중동 전쟁과 일대에서 벌어지는 군사적 충돌로 중동 지역의 GDP가 3.7~6퍼센트 감소하고 경제생산과 관련해 최대 1,940억 달러(약 292조 8,042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
- LNG의 경우 원유와 달리 우회 수송로도 충격을 완화할 전략 비축량도 사실상 부재해 가격이 140% 폭등하는 초유의 사태 발생
 - 세계 최대 LNG 플랜트인 카타르에너지(QE)는 이탈리아, 벨기에, 한국, 중국 고객을 포함한 일부 장기 LNG 공급 계약에 대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

60 Goldman Sachs, “Iran Conflict: How Long, and How Bad?,” Goldman Sachs (March 23, 202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top-of-mind/iran-conflict-how-long-and-how-bad/>

61 박치병, “미국-이란 군사 충돌이 흔드는 바다, 해운은 왜 가장 먼저 반응하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LoTIS (March 31, 2026), <https://www.kmi.re.kr/lotis/news/6016>

나. 지정학적 위기의 글로벌 전이: 거시경제,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

- 글로벌 경제에 성장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충격’이 본격화되고 경기지표가 일제히 악화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확산⁶²
 - 미국은 가솔린 가격 폭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은 카타르산 LNG 수입 차질로 전력 도매가가 폭등
 - IMF와 델로이트 등 경제기관은 2026년 세계 GDP성장률이 0.4~0.8%p 하락하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2~2.9%p 급등할 것으로 전망⁶³
 - ※ IMF는 에너지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세계 GDP성장률은 0.15%p 감소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0.4%p 상승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
 -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브렌트유 기준) 수준 시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1%p 끌어올리고 GDP를 0.6%p 깎아내리는 충격 예측
-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
 -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경기를 꺾는 ‘정책 실패’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경계감 고조
- 한편, 중동발 에너지 가격상승, 달러 강세, 인플레 압력 지속 시 신흥국과 개도국은 통화가치 하락, 수입 물가 상승으로 더 큰 충격 발생
 - 전쟁이 장기화하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일부 취약 국가(에너지 수입국)에서는 외채 상환능력 약화로 재정 및 외환위기 전염 리스크 재부각⁶⁴

62 The Wall Street Journal, “‘Stagflation Alarm Bells’: Iran War Is Already Hitting the Global Economy,” *The Wall Street Journal* (March 24, 2026), <https://www.wsj.com/livecoverage/stock-market-today-dow-sp-500-nasdaq-03-24-2026/card/-stagflation-alarm-bells-iran-war-is-already-hitting-the-global-economy-KERe3AC2T10HeDPi6edG>

63 DAWN, “‘All roads lead to higher prices and slower growth’: IMF says Iran war is dimming outlook for many economies,” *DAWN* (March 30, 2026), <https://www.dawn.com/news/1986884>

64 Goldman Sachs, “How the Iran War Is Impacting Investment Portfolios,” Goldman Sachs (March 27, 202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articles/how-the-iran-war-is-impacting-investment-portfolios/>

다. 산업 및 공급망 영향: 글로벌 물류의 동맥경화 및 공급망 분열

- 아프리카 희망봉 강제 우회로 운항 일수가 평균 10~15일 연장되고 선박 회전율이 급감, 글로벌 해상운임의 폭등을 초래하고 중간재 및 소비재의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적 지연 사태로 연결
 - 글로벌 물류망은 '포스트 수에즈 운하' 대안을 절실히 찾고 있으나, 각 대안 항로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으며 다양한 변수들 존재⁶⁵

〈표 1〉 주요 대안 항로 비교

구분	수에즈 운하	대안 1 희망봉 우회	대안 2 북극항로 (NSR)	대안 3 인도-중동경제회랑 (IMEC)
경로(거리)	싱가포르-인도양-홍해-지중해-유럽 (약 21,000km)	싱가포르-인도양-남아프리카-대서양-유럽 (약 29,000km)	부산/상하이-베링해협-북극해-무르만스크-유럽 (약 13,000~15,000km)	인도-UAE→ 사우디/요르단(철도) → 이스라엘-유럽 (약 13,000~1,5000km)
운송기간	30~35일	40~50일 (10~15일 추가)	20~25일	15~20일 예상
운송비용	기준(운하통과료)	높음(연료비급증, 선박 추가 투입 필요)	중간(쇄빙선 에스코트비, 높은 보험료)	높음(복합운송 환적 비용, 철도 운송비)
장단점	가장 효율적인 경로이나, 이란, 후티반군 등 위협	분쟁지역 회피 가능하나, 물류비 상승 및 탄소배출 증가	시간과 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나, 동절기 운항 제한과 쇄빙선 필수	다수의 환적으로 인한 지연 우려
비고	전통경로	가장 즉각적인 대안으로 이란전쟁시 많은 선사들이 선택	러시아가 강력 추진중인 '꿈의 항로'	2023년 G20에서 발표된 복합 물류 네트워크

자료 : 로이즈(Lloyd's List), 러시아 원자력공사(Rosatom),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에너지정보청(EIA), Navigating Troubled Waters(2024)

- 전 세계 항공 화물의 12% 이상이 중동을 경유하는데, 영공 폐쇄와 항로 차단으로 세계 항공 화물 수송 능력이 약 18% 감소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상 운송이 막히자, 항공으로 몰리면서 항공 용량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극심한 항공 물류 정체는 제조업 전반의 '첫다운' 위기 초래 우려

65 Sebastien Goulard, "The War in Iran and the Revival of the IMEC," Global Connectivities (March 8, 2026), <https://globalconnectivities.com/2026/03/war-iran-imec/>

- 에너지 집약 산업의 원가 부담이 급증하여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중동 에너지에 의존하는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의 위기 고조⁶⁶
 - 반도체 등 정밀 부품의 공급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다시 자동차, 가전 등 후방 산업의 가격상승으로 전이되는 연쇄 반응 발생
- 요소의 전 세계 수출량의 1/3이 걸프 지역에서 생산, 전쟁 이전보다 질소비료 가격이 4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류 정체가 금속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집약산업인 알루미늄은 중동 내 생산시설 피해와 전기료 상승으로 가격이 급등

2.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재편과 주요국의 대응

가. 에너지 시장 구조 변화

- 중동 전쟁 계기로 에너지 시장은 하나의 글로벌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서방과 비서방, 달러와 비달러, 동맹과 비동맹이라는 여러 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복잡한 다층 구조로 변화
- 이러한 에너지 블록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미 변화된 공급망과 결제 시스템은 계속 유지될 전망⁶⁷

1) 안보 중심의 에너지 블록 형성

-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글로벌 에너지 패권은 OPEC이 쥐고 있었으나 셰일 혁명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가스 수출국이 된 미국이 중동 전쟁을 계기로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정점에 접근
 - 에너지가 끊긴 유럽과 동맹국에 미국산 LNG를 공급하며 에너지를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의 대미 에너지 종속성이 과거 대러시아 종속성만큼이나 심화할 가능성⁶⁸

⁶⁶ Victor Cha and Andy Lim, "The Impact of the Iran Conflict on South Korea: By the Numbe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2, 2026), <https://www.csis.org/analysis/impact-iran-conflict-south-korea-numbers>

⁶⁷ 기후에너지경제,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블록화,'" 기후에너지경제 (March 30, 2026), <https://www.ef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5>

⁶⁸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eopolitical Significance of U.S. LNG," CSIS (February 7, 2024), <https://www.csis.org/analysis/geopolitical-significance-us-lng>

- 러-우 전쟁 이후 경제 효율성(비용) 기준의 에너지 거래 대신, 정치적 동맹과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 이미 들어섰으며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
 - 화석연료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면서 '효율성 중심 자유 무역'에서 '안보 중심 블록화'로 명확하게 재편
 - 기존의 '생산자(OPEC) vs 소비자' 구도에서 '미국+동맹국 블록' vs '중국+러시아+이란(제재·대항 블록)'의 진영 논리로 전환

- 미국과 유럽 중심 서방 진영은 러시아 의존을 줄이고, 미국 LNG와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 이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별도의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
 - 이 과정에서 같은 에너지가 서로 다른 가격과 조건으로 거래되는 '이중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 분리가 가속화
 - 특히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는 서방 시장에서는 제재와 정치적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새로운 수요를 형성

- 한편,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이란과 밀착할 경우, OPEC+ 내부의 결속력이 이완되고 카르텔의 시장 통제력은 약화할 전망
 - 이란의 원유 수출이 전면 차단되거나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될 경우, 사우디와 UAE 등 여유 생산 능력을 보유한 국가들이 증산에 나설지가 핵심 변수

- 2) '지정학적 디리스팅' 위한 대체 에너지 전환 가속화
- 중동 화석연료의 위기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좌우되는 화석연료와 중동 집중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동인으로 작용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각국이 스스로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는 '안보 자산'으로 인식되면서 전환 속도도 제고 전망⁶⁹
 - 전쟁의 배경으로 에너지 갈등이 지목되고 있는 데 반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둘러싼 무력 충돌 사례는 드물다는 점에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제적 갈등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⁷⁰

69 글로벌이코노믹, "이란 전쟁, 화석연료 안보 치명적 약점 노출...에너지 독립 역사적 변곡점," 글로벌이코노믹 (March 30, 2026),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3/2026033007422762902bd56fbc3c_1

70 Daniel Dickinson, "Middle East Crisis Exposes Global Energy Fault Line as UN Urges Shift to Renewables," UN News (April 6, 2026), <https://news.un.org/en/story/2026/04/1167243>

- 각국은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곧 국가 안보에 치명적 약점임을 인지하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외부 충격에 강한 원자력 발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집중
 -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햇빛은 가격 급등이 없고 바람은 금수 조치를 할 수 없다”라며, ‘자국 생산 재생에너지’가 가장 빠른 안보의 길이라고 강조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는 “에너지 위기 한 번의 충격 비용이 수십 년간의 탄소중립 이행 비용과 맞먹는다”라고 분석
 - EU는 러시아산 가스 탈피에 이어 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설치 가속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
 -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통해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설비 용량을 비약적으로 확충 중이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ESS) 투자도 확대
 - ※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국가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LNG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석탄 발전 가동률을 높이는 등 고육지책을 동원중⁷¹

3) 원유 결제 통화의 블록화(페트로 달러의 균열)

- 전 세계 원유거래의 80% 이상이 미국 달러(Petrodollar)로 결제되었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통해 통제되었으나, 전쟁 발발 밝은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가 가동되면서 이 체제에 구조적 변화 조짐⁷²
 - 도이체방크(Deutsche Bank)는 “이란 전쟁이 페트로 달러 지배력을 약화하고 ‘페트로위안’ 시대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전망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수송선에 대해 위안화로 결제된 물량에만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방침
 - 제재대상국인 이란, 러시아와 최대 수요국인 중국은 미 금융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Shadow Fleet)’⁷³ 운영을 극대화

71 송하윤, 강문수,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KIEP 오늘의 세계경제 (April 1, 2026), https://www.kiep.re.kr/gallery.es?act=view&bid=0003&list_no=12327&mid=a10102020000

72 한상춘, “미·이란 석유전쟁…미·중 페트로 환율전쟁으로 번지나,” 한경비즈니스 (April 4, 2026),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3243030b>

73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은 주로 국제 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는 유조선 및 화물선단으로, ‘유령 선단(Ghost Fleet)’이라고도 불며 최근에는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와 수출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

- 원유거래를 위안화(페트로 위안)와 중국의 국경 그리고 은행 간 결제시스템(CIPS)으로 진행하려는 블록이 형성되면서 달러 기반 에너지 거래 시스템의 위상 약화⁷⁴

- 달러 대신 CIPS을 이용한 위안화 결제(페트로 위안)나 금, 디지털 화폐로 대금결제를 하면서 지하 에너지 금융망이 확대
- BRICS 국가들 중심으로 자국 통화 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데 2025년 기준 BRICS 내 무역의 67% 이상이 현지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거래에서도 이 비중은 빠르게 상승

나. 주요 플레이어들의 스탠스와 대응

1) 미국 : '에너지 자립국'으로서 에너지 시장 도미넌스 공고화

- 세일 혁명을 통해 원유와 가스 생산능력을 확보한 미국은 에너지 자립국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시장을 좌우하는 최상위 공급자로 자리매김

- 백악관은 올해 2월 공식성명에서 “미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에너지 패권국가”라고 강조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초기 유가 급등 국면에서 “유가가 오르면 오르는 것”(If they rise, they rise)이라며 자신감 과시
- 미국은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장을 교란해 왔으며 이번 전쟁은 이러한 시장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치라고 인식⁷⁵
- 미국이 러시아, 이란 에너지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중동 전쟁에서도 OPEC에 손을 벌리지 않고 독자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성과로 제시

- 특히 이번 전쟁에서 중동 LNG 공급이 흔들리고 미국산 LNG의 전략적 가치가 두드러지면서 유럽과 아시아국들이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도입선을 미국산 LNG로 전환(유럽은 50% 이상 차지)

- 미국 LNG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고 계약 구조도 유연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LNG 공급 공백을 메우는 역할 수행

74 한국무역협회, “이란, 미국 석유 패권 ‘페트로달러’ 흔들나,” 한국무역협회 (March 18, 2026),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100024&siteId=2>

75 에너지경제신문, “미의 진짜 의도...이란 전쟁은 에너지 패권 장악 위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March 24, 2026),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603240003>

- 2) 중국 : 위안화 연계 에너지 전략으로 달러 중심 체제 도전
- 중국은 막대한 석유 비축량(약 4개월 치 수입량에 해당)과 에너지원 다변화를 통해 즉각적인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공급 차질로 인한 영향을 축소
 - 미국의 대이란 세컨더리 보이콧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달러 결제망(SWIFT) 대신 CIPS를 통해 안정적인 석유 수입 유지⁷⁶
 - 미 PIIE는 2021년 이후 이란은 중국과 25년 협정을 맺고 중국의 투자와 안보협력 대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4,000억 달러 규모의 원유공급을 보장했으며, 분쟁 첫 몇 주 동안에만 이란산 원유 1,100만 배럴 이상이 계속 중국으로 흘러갔다고 분석⁷⁷
 - 이란산 제재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는 ‘페트로 위안’ 거래 규모가 전쟁 발발 직후 대폭 증대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탈달러, 페트로위안화’ 움직임을 가속화
 - 유럽외교협의회(ECFR)는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 비달러화 에너지 판매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한편,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 달러 지배력이 약화하고 위안화 결제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3.25)
 - 해상 수입 차질분을 만회하기 위해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와의 육상 파이프라인 가동률을 한계치까지 끌어올리고 해상 방어가 불필요한 미얀마-중국 가스관(Kyaukpyu 항구 연결)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
 - 동부 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일일 160만 배럴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가스관을 연간 380억bcm 최대 용량으로 가동 중⁷⁸

76 홍콩한타임즈, “이란 전쟁의 수혜자는 중국? 중국, 세계 시장 점유율 확보 기회,” 홍콩한타임즈 (April 2, 2026), <https://www.hkhtimes.com/news/30376>

77 Elina Ribakova and Alicia García-Herrero, “How Russia and China Are Winning the War in Iran,”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arch 30, 2026), <https://www.piie.com/blogs/realtime-economics/2026/how-russia-and-china-are-winning-war-iran>

78 Michal Meidan, “The Power of Siberia 2 Pipeline: A Test for Russia-China Energy Relations,”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May 2022), <https://www.oxfordenergy.org/publications/the-power-of-siberia-2-pipeline-a-test-for-russia-china-energy-relations/>

- 3) EU : 미국 블록 편입과 '전시 체제형 탈탄소 안보' 확립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가스망이 끊긴 데 이어, 이번 사태로 중동 가스 공급마저 막히면서 미국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심화⁷⁹
 - EU는 2026년 1월,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LNG 및 파이프라인)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으며 중동 전쟁은 이러한 정책적 결단을 실행에 옮기는 촉매제로 작용
 - 현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피하고자 미국 LNG 수출업자들과 15~20년 장기 구매 계약을 맺으며 공급 안정성을 도모
 - “에너지 자급만이 국가 생존”이라는 안보 논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안보형 탈탄소 정책’으로 전환하고 원자력이 ‘핵심 안보 자산’으로 복귀
 - 중동발 에너지 쇼크 이후 EU는 ‘Clean Industrial Deal’과 같은 정책을 통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등 클린테크 제조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대규모 자금을 투입⁸⁰
 -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등은 산업 부문에서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승인하며 그린 수소 생산시설 확충에 박차
- 4) 걸프 산유국(GCC) : 우회 물류망 풀가동과 ‘포스트 오일’ 체질 개선
- 1945년 이후 유지되어 온 ‘석유와 안보의 교환(Oil for Security)’이라는 미국과 걸프 산유국 간의 오래된 계약이 사실상 종료
 - 중동 의존도가 높았던 아시아 국가(중국, 한국, 일본 등)들이 중동 외 지역으로 공급선을 다변화하면서, GCC의 시장 지배력에 균열 발생
 - 안전한 투자처이자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의 위상이 지정학적 취약성 노출로 인해 타격을 받자, 바다의 병목 현상 극복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횡단 송유관을 풀가동, 물류 질서 변화에 대응⁸¹
 - UAE, 사우디는 아프리카와 인도의 주요 항만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며, 분쟁 시에도 안전한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방안 모색

79 Lisa Basquel, “How the Iran War Could Trigger a European Energy Crisis,” Atlantic Council (March 17,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how-the-iran-war-could-trigger-a-european-energy-crisis/>

80 Simone Tagliapietra, “How Will the Iran Conflict Hit European Energy Markets?,” Bruegel (March 2, 2026), <https://www.bruegel.org/first-glance/how-will-iran-conflict-hit-european-energy-markets/>

81 Financial Times, “Gulf States Consider Bypassing Strait of Hormuz With New Oil Pipelines via Haifa,” *Financial Times* (April 2, 2026), <https://www.ft.com/content/880664d8-e110-4760-8b00-aa3141a770ff>

〈표 2〉 중동 주요 산유국 우회 수송로 및 파이프라인 현황

국가	우회 경로	시작점 → 종착점	특징
사우디	동서 파이프라인 (Petroline)	아브카이크(동부) → 안부(홍해 연안)	사우디 최대의 우회로, 페르시아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홍해로 연결
UAE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 (ADCOP)	합산(내륙) → 푸자이라(오만만)	호르무즈 해협 입구 바깥쪽인 푸자이라항으로 직접 연결되어 위험구간 회피
이라크	이라크-터키 파이프라인 (ITP)	키르쿠크 → 세이한(터키)	페르시아만 전체남부 항구가 아닌 북부 육로를 통해 지중해로 원유 송출
이라크	이라크-요르단 파이프라인 (추진중)	바스라 → 아카바(요르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정세 불안으로 속도가 더디나 전략적 중요성 지대

자료 : 저자 재구성

- 막대한 ‘오일 머니’를 국부펀드를 활용해 서방의 AI, 재생에너지 등 차세대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포스트 오일 시대’ 준비⁸²
 - 사우디 PIF는 네옴시티 내 세계 최대 규모 그린수소 공장을 가동하며, 이를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한 물류 네트워크에 집중 투자
 - UAE 무바달라(Mubadala)와 마스다르(Masdar)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100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유럽과 북미의 풍력·태양광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 클린테크 공급망 장악 추진

82 The Economist, “The Great Transition: How Gulf States Are Spending Their Way Out of Oil,” *The Economist* (January 20, 2026), <https://www.economist.com/middle-east-and-africa/2026/01/20/gulf-states-energy-transition>

VII 신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동 전쟁

1. 혐오에 기반한 전쟁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 AI와 빅데이터 등 21세기 신기술발전은 종교, 종파, 인종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실시간으로 확산
 - 코로나19 이후 형성된 초연결시대에 AI와 위성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기술적으로 확산하면서 편향된 정보의 확대 재생산이 강화되면서 혐오의 조성과 확산이 용이
- 2026년 중동 전쟁은 종교와 종파 및 인종에 대한 혐오가 신기술과 결합하여, 정치적·경제적 이익의 추구라는 알고리즘이 확산하는 경향
 - 종교와 종파 및 인종의 차이를 인정하여 외교적 문제해결을 추구하기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한 전쟁을 보다 쉬운 해결책으로 선택
 - 혐오에 기초하기 때문에, 폭격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민간 인프라의 파괴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이 결여
 - 혐오에 기반한 전쟁이므로, 상대방 살상에 대한 영상 공개에 관하여 거부감이 없고, 오히려 전쟁을 일종의 게임으로 인식
- 혐오를 부추김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므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초래 가능성 다대
 -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치에 실패한 인기 없는 지도자가 혐오를 조장하여 독단적 결정으로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잃어버린 민심을 되찾고 가장된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유혹에 노출됨으로써 민주주의 취약성 증대
 - 권위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민생문제를 볼모로 여론의 압박을 유도하여 전쟁 수행의 중단을 촉진하거나 지도자를 교체하게끔 전쟁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 이를 이용하여 인기 없는 민주국가의 지도자는 독재 혹은 권위주의화 되고, 민주적 시스템 작동에 한계가 발생하여 민주주의 위기 발생
 - ※ 미 정보기관이 이란의 핵 위협이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지속

- 혐오에 기초한 전쟁이므로, 국제 규범의 준수는 무의미하고, 혐오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 전쟁 비용을 전가
 - 혐오에 기초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무력충돌법, 국제인도법 등 기존 전쟁 규범의 준수는 몰각
 - 혐오에 따르기 때문에 국제법상 금지된 무기의 사용에 대하여도 거리낌이 없는 상황 형성
 - 전쟁 수행에 있어 혐오에의 동참을 강요함으로써 민간과 동맹에 대해 전쟁 비용을 전가, 민간 자산의 군사적 지원·활용 및 동맹의 군사적 참여 강압

2. 전쟁 수행 주체로서의 인공지능(AI) 등장

- 인공지능(AI)이 전쟁 수행의 의사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쟁의 주체로 등장
 - 중동 전쟁의 미국 사령관인 쿠퍼(Brad Cooper) 장군은 분쟁 상황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AI 도구’를 사용했다고 설명⁸³
 - 이는 AI를 사용한 표적 선정이나 요인 암살이 전쟁 수행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음을 시사
 - 이란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 군사 작전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바레인에 있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센터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 센터도 타격했다고 주장⁸⁴
- AI가 전쟁에 도입됨으로써, 전장 상황 인식을 높이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군사 작전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적시성과 정확성 및 확실성 담보
 - 미 전쟁부는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aven Smart System)’⁸⁵을 도입하여 AI 기반 이미지 분석과 데이터 처리 기능을 활용해, 작전 시간 단축 및 효율성 증대시키고, 공격 대상 지역·사람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며, 타격에 대한 지휘체통의 승인을 지원⁸⁶

83 U.S. Central Command, “Update from CENTCOM Commander on Operation Epic Fury”, YouTube (March 11, 2026), <https://www.youtube.com/watch?v=xlTju2XC3E>

84 KBS News, “이란은 보복 ‘데이터 센터 타격’...‘사드 레이더도 파손’”, KBS News (April 3, 20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26297&ref=A>

85 위성 영상, 드론 영상, 레이더 데이터, 신호정보를 단일 인터페이스로 통합하여, 작전 요원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표적을 분류하고, 무기를 추천하며, 타격 계획을 수립

86 Joseph Clark, “Defense Leaders Combine Top-Down Guidance With Frontline Expertise to Develop Cutting-Edge Technology”, DOD NEWS (September 3, 2024), <https://www.war.gov/News/News-Stories/Article/Article/3892427/defense-leaders-combine-top-down-guidance-with-frontline-expertise-to-develop-c/>

- 무력 충돌과 같이 다양한 위협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환경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을 수반할 가능성 다대⁸⁷
 - AI 모델은 결함이 있는 데이터나 실제와 다른 훈련 상황에 기초한 데이터로 학습되기 때문에, 실제 전장 환경에서 사용될 때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거나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 다대
 - AI 대규모 언어 모델은 통계적 확률을 바탕으로 단어 순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내놓을 확률은 높지만 항상 올바른 답을 제시한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
 - AI 기반 표적 선정과 작전 수행의 윤리적 문제와 민간인 보호 안전장치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⁸⁸
- 그런데도 중동 전쟁은 무력 충돌에 있어 AI가 더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전쟁 수행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
 - AI가 실전 상황 학습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하여 오히려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할 필요

3. 세계 경제를 전쟁 지속의 불모로 활용한 거래적 전쟁

- 이란은 원유와 물류 수송의 핵심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세계 경제를 불모로 전쟁을 지속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
 - 이란의 경우 장기간의 경제제재에 따라 국민 사이에 결핍이 내성화되어 있어 경제적 버티기 전략에 대해 민심 이탈 가능성 희박
 - 미국과 유럽,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은 항행의 자유에 따른 혜택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려 왔지만, 해협 봉쇄로 인한 물가 폭등과 원자재 부족으로, 정부에 대한 여론의 압박이 증대
- 중동 전쟁은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 위기 상황을 조성하여 전쟁 수행의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적대국 또는 그 동맹국의 인프라에 대한 타격을 확대
 - 이번 중동 전쟁은 비록 지역적으로는 중동에서 발생하였지만, 공급망과 디지털 네트워크로 초연 결된 지구촌 전체에 악영향

87 Nilza Amaral, "The Iran war highlights the creeping use of AI in warfare", CHATHAM HOUSE (March 26, 2026), <https://www.chathamhouse.org/2026/03/iran-war-highlights-creeping-use-ai-warfare>

88 Michael Brown, "The First AI War: How The Iran Conflict Is Reshaping Warfare", Forbes(March 30, 2026), <https://www.forbes.com/sites/mikebrown/2026/03/30/the-first-ai-war-how-the-iran-conflict-is-reshaping-warfare/>

-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이 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과 생필품 및 의약품 수급에 비상
-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달러 패권의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 다대
 -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대가로 석유 수출 수익을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고, 미국은 이들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는 거래적 약속이 지속⁸⁹
 - 또한 이들 석유 군주국은 중동 지역의 현상 유지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호자로서 미국에 의존하려는 경향
 - 이란은 이번 중동 전쟁에서 이들 국가의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미국과 걸프 국가들의 거래적 의존 관계 지속의 유인을 약화하고,⁹⁰ 호르무즈 위기 사태를 무기로 삼아 위안화를 대체 결제 통화로 채택함으로써 석유 판매의 탈달러화를 추진⁹¹
 - 중국이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획득하고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을 규합하여 통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작다고 할 수 있는 상황
 - 그러나 이번 중동 전쟁은 미국의 석유 달러 중심성이 약화하고 새로운 다극적 통화 질서의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이 될 전망⁹²
- 혐오 이데올로기로 촉발된 전쟁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거래의 수단 가운데 하나로 전략시켜 안보 장사에 활용
 - 미국은 동맹에 대한 군사적 참여를 압박하고 이에 대응하여 동맹탈퇴, 동맹의 방위비 부담 증대 요구
 - 이 와중에 미 국무부는 UAE, 쿠웨이트, 요르단 등 중동 국가에 대하여 160억 달러의 무기 수출 거래를 허가⁹³
 - 이란은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선박 1척당 약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오만과 나누는 방안을 제시⁹⁴

89 Jose Miguel Alonso-Trabanco, "The Geoeconomic Angle of the Third Gulf War", *Geopolitical Monitor* (April 3, 2026),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the-geoeconomic-angle-of-the-iran-war/>

90 Ibid.

91 Ibid.

92 ibid.

93 Andy Hirschfeld, "US approves \$16.5bn arms deal to Gulf states amid rising Iran tensions", *ALJAZEERA* (March 19, 2026),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3/19/us-approves-16-5bn-arms-deal-to-gulf-states-amid-rising-iran-tensions>

94 한지혜, "이란 '호르무즈 1척당 30억' 등 역제안... '美동맹 석기시대 될 것' 위협", *중앙일보* (2026. 4. 7), <https://www.>

-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권을 이란이 아닌 미국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⁹⁵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누어 갖는 데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4. 전쟁 공간의 다영역 확장

가. 인식 영역으로 전쟁 확대

- 중동 전쟁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한 인지전 및 영향력 공작의 결과로 감행된 최초의 전쟁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모사드 등 이스라엘의 정보기관과 국가기관 대표들을 대동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여 이란에 대한 전쟁 필요성을 공작함으로써 전쟁이 개시⁹⁶
 - 전쟁 초기에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정권교체를 독려하는 일련의 작전을 병행하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나 전쟁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다는 논리에 트럼프가 설득되어 전쟁이 개시
 - 인지전, 영향력 공작, 하이브리드 위협 등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의하여 감행되어 국가적 의사 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방증
- 중동 전쟁은 적대국의 피해를 부각하고 혐오를 조장하며 아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 기반의 편향된 정보를 유포하는 인지전 영역으로 확대
 - 개전 초기 미국과 이스라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이란의 항전 의지를 꺾고, 군사적 성과를 과시⁹⁷
 - 이란은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해 맞대응하고 있는데, 가짜 가족 대피 영상, 허위 폭발 영상은 물론 정부 주도 딥페이크 활용
 - AI, SNS, 해킹 기술이 알고리즘을 장악함으로써 상대방의 인식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지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등장

joongang.co.kr/article/25418180

95 차미레, “트럼프 ‘이란 대신 미국이 호르무즈 통과 요금소 맡아야’ 주장도”, 뉴시스 (2026. 4. 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407_0003580215

96 Maggie Haberman, “6 Takeaways From the Story of Trump’s Decision to Go to War With Iran”, *The New York Times* (April 7, 2026), <https://www.nytimes.com/2026/04/07/us/politics/trump-iran-war.html>

97 Dan Sabbagh, “Iran Social Media Strategy Pivots to Information War Amid US-Israel Attack”, *The Guardian* (March 22, 20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22/iran-social-media-strategy-information-war-us-israel-attack>

-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등을 통하여 조회수가 늘어날수록 수익 창출의 기회가 증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또한 증대될 것이므로, 인지전과 정보전의 공간도 확장

나. 우주를 활용한 전쟁

-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위성이 감시·정찰을 넘어 표적 탐지와 통신까지 전장 전반을 지배함에 따라 우주가 중요한 전장 공간으로 재인식
 - 미국과 이스라엘은 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타격을 탐지하고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란은 저가형 드론 및 탄도미사일 운영에 위성 위치기반시스템을 활용
 - 이란은 러시아로부터 중동 지역 미군 기지 등에 대한 위성 정찰 이미지를 제공받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한 의혹⁹⁸
 - 미국은 중국 기업이 중동 내 미군 기지의 AI 강화 위성 이미지를 공개한 것이 이란군의 표적 식별을 돕고 있는 것으로 분석⁹⁹
 - 이란이 이스라엘 및 미 군사 시설을 타격하기 위해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¹⁰⁰
- 이번 중동 전쟁에서는 우주 기반 기술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통해 우주 전장의 지배권 확보를 전쟁 수행의 우선순위로 추진
 - 첨단 전장 전술과 우주 기술의 급속한 상용화, 그리고 전반적인 기존 규칙 기반 질서의 붕괴가 결합하면서 우주 전장의 지배는 민간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 다대¹⁰¹

98 성주원, “러, 이란에 美기지 위성사진·이스라엘 전력 표적 목록 넘겼다”, 마켓인 (2026. 4. 7), <https://marketin.edaily.co.kr/News/ReadE?newsId=04982326645413824>

99 Henry Zwartz and Kathleen Calderwood, “Chinese Satellite Imagery of Middle East Bases Is Helping Iran, US Intelligence Says”, *ABC News* (April 5, 2026), <https://www.abc.net.au/news/2026-04-06/us-intelligence-chinese-satellite-imagery-middle-east/106508322>

100 Nina Montagu-Smith, “Could Iran Be Using China’s Highly Accurate BeiDou Navigation System?”, *Al Jazeera* (March 11, 2026),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6/3/11/could-iran-be-using-chinas-highly-accurate-beidou-navigation-system>

101 Anna Marie Brennan, “Commercial space technology is shaping the Iran war - the law can’t keep up”, *The Conversation* (March 11, 2026), <https://theconversation.com/commercial-space-technology-is-shaping-the-iran-war-the-law-cant-keep-up-277940>

다.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

-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번 중동 전쟁에서도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전장으로 인식
 - 이란 연계 해킹조직과 해커비스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민간 기업, 산업제어시스템, 통신·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주장하고,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통신·센서 네트워크를 교란하는 반격¹⁰²
-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볼 때, 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인프라가 마비되는 등의 직접적 피해 사례는 상당히 희박
 -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활동이 효력을 발휘한 결과로 볼 수도 있는 상황
 - 아울러, 미사일과 드론은 물론 원유 수급 차단 등 물리력과 경제적 위력의 행사가 사이버 공격을 보다 효과적인 전쟁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능성도 존재

5. 물량과 신기술 무기체계 우위를 통한 핵전력 비대칭성 극복 가능성

가. 물량을 통한 전쟁 수행 우위 확보 가능성

- 표적에 대한 정밀 집중 타격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저가인 무기체계가 현대 전쟁의 필수 요소로 등장¹⁰³
 - 이란의 샤헤드-136 드론은 개당 2만 달러에 불과한데, 이는 선진 방공망 요격체 가격의 극히 일부에 불과
 - 고가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저가에 대량 생산된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로 인하여, 방공망 운영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극히 불리한 상황
- 압도적 제조 역량에 기초한 (방공)무기의 물량 제공으로, 전쟁 수행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동맹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 이를 위하여 재래식 무기 양산의 지속 가능한 우위 유지를 위한 방산 생태계 지원 강화 필요

102 노정용, “미·이란 전쟁, 미사일 넘어 사이버전 확산…병원망·전력망·통신망까지 겨눴다”, 보안뉴스(2026. 3. 19),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6/03/202603190946069035e8b8a793f7_1

103 Mike Brown, “The First AI War: How The Iran Conflict Is Reshaping Warfare”, Forbes (March 30, 2026), <https://www.forbes.com/sites/mikebrown/2026/03/30/the-first-ai-war-how-the-iran-conflict-is-reshaping-warfare/>

나. 신기술 무기체계의 우위를 통한 핵전력 비대칭성 극복 가능성

- 무인항공기(UAV), 드론, 자율무기체계(AWS), 피지컬AI 무기/로봇, 지향성에너지무기(DEW)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칭 전력 개발을 통해 핵전력 비대칭성 극복 노력
 - 고위력, 초정밀 유도무기의 개발로, 적 지도부에 대한 조기 타격 역량을 보유하고, 핵잠수함, 장거리 드론, 극초음속활공비행체 등 고위력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략적 투발수단 운영을 위해 노력
- AI, 사이버, 우주 등을 연결하는 초연결초지능형 지휘통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미래 전쟁 환경에 대한 철저한 대비
 - 인지전, 영향력 공작, 하이브리드 전쟁 등 편향된 알고리즘 지배에 대비하고, AI의 전쟁 사용에 대한 윤리적 논쟁 등 전쟁 관련 규범 정립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

VIII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 분야별 전망과 시사점

가. 군사 안보

■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과 방어체계 고도화 필요

- 이란의 ‘섞어쓰기’ 전술과 북한의 복합 공격 시나리오는 구조적으로 유사하며, 중동전의 막대한 패트리엇 소모 사례는 북한의 파상공세 시 우리의 방공 재고 지속 능력에 대한 근본적 우려를 제기
- 이스라엘 Arrow · David’s Sling은 이란의 집속탄두 · 포화 전술 앞에서 복수의 요격 실패를 경험 하였으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서울 도달 시간은 최소 2~3분으로 대응 시간이 구조적으로 제약
- AI 기반 자동 탐지 · 요격 시스템 도입은 북한 미사일의 극단적으로 짧은 비행시간을 고려할 때 필수적이며, 탐지→판단→결심→요격 전 사이클에 AI를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KAMD AI 통합체계 발전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가능성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 역량 강화

- 인도태평양 및 한반도 내 패트리엇(PAC-3) 등 미 핵심 방공 자산의 긴급 재배치는 미 전략 자산 운용이 더 이상 한반도에 고착되지 않고 유연하게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동맹국들이 ‘연루의 공포’를 피하고자 미군의 자국기지 및 영공 사용을 제한하는 경향은 주한미군의 역외 출동 시에 기지 활용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정책 조율 필요성의 증대 가능성을 시사
-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역외 전력 운용 가속화에 대응하여, 동맹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미 증원 전력의 재배치 상황을 고려한 독자적 방공 · 경보 · 지휘체계 보강을 통해 자체 방위 지속성을 확보

- 한반도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혁신 및 전력 체계 확보
 - ‘저비용 공격 vs 고비용 방어’의 비대칭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피지컬 AI나 레이저 방공 등 비용 대비 효율적 요격 수단을 확보하여 대규모 소모전 환경에서의 방어 지속성 보장
 - 탄약 및 요격탄 확충, 저가 요격 수단 도입 등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전력 확대를 넘어 유사시 소모 속도를 억제하고, 교전당 비용을 절감하는 구조적 전환을 시급히 추진
 - 이를 위해 AI 기반 ‘Kill Web’을 구축하여 실시간 최적 타격 체계로 전환하고, 고출력 레이저 및 안티드론 체계 등 저비용·다층 방어망을 확보함으로써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효율을 극대화
 - 중동전의 실전 요격 데이터를 분석하여 AI 기반 지휘결심체계 및 고출력 레이저 등 차세대 비대칭 대응 기술에 투영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최적화된 군사혁신을 가속화하고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

- 미국 측의 안보 기여 요구에 따른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국익 중심의 전략적 대응 요구
 - 대중동 지원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 전투 참여를 지양하고 해상안보·후방지원·인도주의 협력 중심의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동맹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는 한편, 과도한 군사 개입은 방지하여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 K-방산의 중동국 수출을 가속하여 현지 자국 방어 역량을 제고하는 등 미국 전략 자산(패트리어트 등)의 중동 상시 배치 소요와 미군 전력 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전략적 대안’ 제시
 - 미국 측의 중동 기여 요구의 대응 결과가 향후 방위비 분담금, 전략자산 전개비용, 연합훈련비, 방산 구매 등 전방위적 비용 분담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

- 중동전 실전 검증을 통한 K-방산의 전략적 위상 격상
 - 천궁-II의 중동전 실전 요격 성공으로 입증된 방산의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방산 수출과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결합한 ‘방위산업-에너지-외교’ 통합 패키지형 국가 전략 체계를 제도화
 - 다만 수출 확대와 한국군 전력 유지 간의 물량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시 생산능력 확충과 전시 생산 전환 체계를 구축하여 수출 호황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국방·방산 구조를 확립

나. 경제 안보

- 자원이 ‘전략무기’임을 재확인시켜 자원 자급률이 낮은 우리의 경우 국제 정치의 변화, 특히 중동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과 수급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적 취약성을 재확인¹⁰⁴
 -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경제의 원유 의존도가 훨씬 높아 유가 상승 시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더 쉽게 노출되고 수입 가격 급등으로 경상수지 감소가 동반되면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¹⁰⁵

〈표 3〉 주요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

국가	원유 수입 의존도	석유 소비 집약도 (상대적 수준)	주요 특징
한국	약 100% (수입)	최상위 (OECD 1위)	제조업 비중이 높아 유가상승 시 원가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
일본	약 100% (수입)	중간	중동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한국보다 높으나, 산업 구조 효율화로 집약도는 낮음
중국	약 70% (수입)	높음	러시아·중앙아시아 등 육로 수입선 확보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상대적 강함
독일	약 90% (수입)	낮음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화로 석유 의존도 지속 감소
미국	자급자족 가능	중간	세계 1위 산유국으로 유가 상승이 오히려 에너지 산업 수익으로 연결됨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등 참조해 작성

- 이번 전쟁을 통해 화석연료 공급망이 흔들리면 에너지뿐 아니라 비료, 금속, 반도체 소재 등 산업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
 - 국제 유가 10% 상승 시 국내 제조업 원가가 0.71% 상승하며 특히 석유제품(6.3%), 화학제품(1.59%)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직격탄
 - 핵심 산업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한국 제품의 입지를 흔드는 ‘공급망 안보’ 위기로 전이
 - 특히, 국내 정유업체는 중동 자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정유 설비도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어 단기간 내 도입선 변경이 곤란

104 Ellen Kim, “The Impact of the Ira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March 23, 2026), <https://keia.org/the-peninsula/the-impact-of-the-iran-war-on-the-korean-peninsula/>

105 윤영숙, “유가 100달러 돌파, 韓 원유의존도 OECD 1위…‘스크루플레이션’ 위험,” 연합인포맥스 (March 9, 2026),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2478>

- 기존의 저비용·고효율 중심 공급망 추구 노선에서 에너지 안보의 확보 관점에서 공격적인 ‘에너지 믹스’ 재편 노선으로의 전환
 - 우리 경제가 그간 ‘저비용·고효율’의 공급망을 추구했다면, 중동 전쟁 이후에는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회복력’ 중심의 체질 개선이 필요
 - 중동 리스크를 회피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 가치 공유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
 - 화석연료의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 원자력, LNG 수입선 다변화 등 ‘에너지 믹스’ 재편을 가속할 필요성 절감¹⁰⁶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의 재설계를 통해 탈 화석연료와 자립화로 에너지 주권 확립 필요
 - 외부 의존도가 높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국산 에너지 및 안정적 공급망 중심으로 전환, 에너지 자급률 제고
 - 수소 생산·운송·활용 생태계를 조기 구축하고 호주, 미국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국가들과 ‘그린 수소’ 협력 확대
 - 탄소중립 목표 유지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수출 기회로 활용

- 중국 사례를 참고하여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정책을 적극 추진
 -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정책은 미중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심화 속에서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꾸준히 진화해왔고 이번 전쟁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
 - 중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해상 수송(특히 말라카 해협)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러시아·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육로 공급망을 대폭 강화
 -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20% 미만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고수하며 러시아(17.4%), 사우디(14%), 말레이시아, 이라크 등으로 공급처를 촘촘히 분산

106 Gas Outlook, “As the Iran War Intensifies, South Korea Renewables Shift Accelerates,” Gas Outlook (March 19, 2026), <https://gasoutlook.com/analysis/as-the-iran-war-intensifies-south-korea-renewables-shift-accelerates/>

- 공급망의 지경학적 다변화를 통해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고려
 -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대폭 상향하고 브라질, 가이아나 등 미주 지역과의 도입 협력을 통해 '중동 리스크' 우회·분산
 - 베네수엘라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수준의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향후 미국이 중남미 원유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비, 선제적 접근 모색¹⁰⁷
 - 해외 광구 지분 확보 및 직접 개발을 활성화, 위기 시 우선 수입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리적 통제력 확보

- 에너지 외교 다각화로 수동적 구매자 모델에서 공급 안정성 제고 추구
 - 에너지 전환에 필수인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호주, 캐나다 등과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강화
 - 중앙아시아와 동아프리카 자원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건설과 자원 확보를 맞교환하는 패키지 외교를 통해 에너지 벨트 구축
 - 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수 있도록 원자력과 수소 등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의 국제 인증 체계 주도를 위한 다자 외교 추진

- 과도한 중동산 에너지 의존 축소를 위한 효과적 '국내 거버넌스'의 구축
 - 한국의 중동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유는 국내 정유사의 이해관계, 즉,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수익 모델과 설비 구조가 '중질유'와 '고황유' 중심의 중동 원유에 완전히 최적화돼 있기 때문
 - 최대 주주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Aramco)'인 S-OIL 사례처럼, 일부 정유사는 기업 지배구조상 자본 자체가 중동과 묶여 있어 공급망 다변화에 명확한 한계를 노정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절실하고, 동 사안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칭 '국가에너지안보위원회' 등의 신설을 고려

다. 신안보

- 중동 전쟁은 21세기 AI 기술에 의하여 확증 편향된 혐오에 기반하여 전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자초하였으므로, 혐오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

107 이양승, “전쟁의 시대, 에너지의 재편, 한국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브레이크뉴스 (March 26, 2026), <https://www.breaknews.com/1195233>

- 중동 전쟁에서 시가 전쟁에 대한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전쟁의 주체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AI 기술을 주도하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AI 윤리와 시에 대한 인간 통제 등 새로운 국제 규범과 체계 합의를 주도할 필요
- 중동 전쟁으로 인해 촉발될 여지가 있는 석유 달러 패권의 한계에 대하여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외환 보유를 시도하고, 전쟁에 대한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경학적 초크포인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필요
- 적국이나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이나 우방국으로부터의 영향력 공작과 인지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 물량을 통한 전쟁 수행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 방산 및 제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신기술 무기체계의 우위를 통해 핵전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2. 한반도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가.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 중동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중동과 유럽 및 인도-태평양이라는 세 개의 전구(Theater)를 동시에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미국의 관심과 전력이 중동 등 다른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힘의 공백으로 인식될 가능성
- 실제로 타 지역에 배치된 미군 전략자산들이 중동으로 이전 배치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 안보 공약 신뢰 논란을 자극¹⁰⁸
 - 예컨대 한반도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부를 포함한 주한미군 전략자산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이것이 대북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발생¹⁰⁹
 - 최근 발간된 미국 국방전략(NDS)에서도 미국은 북한 역제의 1차적 책임이 한국에 있으며 미국의 지원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일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이러한 변화가 주한미군 태세의 현대화와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¹¹⁰

108 Mina Pollmann, “The Iran-Israel-US War Is Reconfiguring US Force Posture in the Indo-Pacific,” *The Diplomat* (March 14, 2026), <https://thediplomat.com/2026/03/the-iran-israel-us-war-is-reconfiguring-us-force-posture-in-the-indo-pacific/>

109 Justin McCurry, “Hasty redeployment of US missiles from South Korea to Middle East leaves Seoul rattled,” *The Guardian* (March 11, 202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6/mar/11/redeployment-us-missiles-thaad-south-korea-middle-east-seoul-iran>

- 중동 전쟁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란을 현실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계기로 작용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9.11테러 이후 미국 부시 행정부가 Global Posture Review를 통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표면화된 지 오래된 이슈
 - 동 사안은 2000년대 초반 이라크전 파병 논란을 통해 본격 제기되었으며, 2006년 한미 간 이해(understanding)를 통해 일단락되었으나¹¹¹, 미국이 중동 전쟁 파병을 요청하면서 다시 쟁점화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이를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대중 견제 수단으로 인식
 -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대중국 견제는 핵심적 과제이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는 대중 견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슈
 -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문제 및 동중국해 항행의 자유 등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역할 증대 혹은 동맹으로서 한국의 참여 요구 등이 연계될 때 한국은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우려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정책변화를 의미하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제에 한정되지 않고 확대되는 것은, 한반도 방어를 있어 한국이 일차적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
 - 이는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이슈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동맹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 중동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에 군함파견 등 군사적 지원을 요청
 -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비난¹¹²
 - 이처럼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파병을 요청하면서 원하지 않는 분쟁 연루 위험의 현실화 등 연루와 방기의 위험이 동시에 실현 있는 상황
 - 미국의 거래적 동맹관에 기초한 동맹현대화 시도 추세를 고려할 때, 변화된 미국과의 한미동맹 관리가 우리의 안보 전략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

110 Department of War,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 23 2026), pp. 20-21.

111 당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 이행에 있어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 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바 있음. 국정홍보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설명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06. 1. 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40070838>>

112 Wyatt Olson, “Trump faults Japan, South Korea and Australia for not helping in war against Iran,” Stars and Stripes (April 7, 2026), https://www.stripes.com/theaters/asia_pacific/2026-04-07/trump-iran-war-japan-south-korea-21301817.html

- 전쟁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 극복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
 -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현대화’를 계기로 현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로드맵을 구체화
 - ※ 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재래식 위협은 한국의 책임’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부담 경감을 추구

나. 북한의 전략적 계산 변화

- 베네수엘라 및 이란에서 미국이 상대국 지도부를 직접 겨냥한 ‘참수 작전’을 강행한 바, 북한의 대미 경계심이 크게 높아졌을 가능성
 - 특히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 중에 대화 상대방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 의지가 후퇴하였을 가능성
 - ※ 미국 참수 작전의 군사적 치명성에 대한 북한의 경계심도 높아졌을 것인 바, 2022년 제정한 핵무력정책법에서 북한이 언급한 ‘자동보복체계’¹¹³ 등에 대한 보완 등이 뒤따를 가능성
 - 반면 북미 양국 지도자 간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만남을 통해 미국의 진의를 파악해 볼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
 - 특히 북미대화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시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북한은 미국과 트럼프를 직접 자극하는 것을 자제
- 중동 전쟁이 북한의 핵심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불신을 자극하였을 가능성
 - 중국과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란을 지원하기보다는 수동적 지지에 그치고 있는 상황
 - 최근 김정은은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과거 외교관행에서 벗어난 국익 중심의 대외정책 추진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강대국들의 전략적 기회주의를 고려한 대외정책 선택지 최대화 시도로 평가
 - ※ “국익 수호를 첫째가는 원칙으로 삼고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자주적 대외정책 실시 ... 지난 시기의 낡은 외교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할 것”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6. 3. 24)

113 핵무력 정책법 제3조 3항,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 핵보유국인 이스라엘이 향후 핵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따라 북한의 군사전략도 변화 가능성이
 - 핵무기를 보유하고도 실제 상황에서 핵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북한 역시 전략무기 이외에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가속화 할 전망
 - ※ 실제 핵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된다면 이는 국제사회의 묵시적 핵 금기가 깨진 것으로 글로벌 비확산체제의 위기 심화 불가피

- 중동 전쟁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군사 전략 · 전술 및 무기체계 등 현대전 변화 추세가 북한 군사전략 및 군사력 건설에 반영될 전망
 - 러-우 전쟁에 이어 중동 전쟁에서도 드론 등 값싸고 효과적인 무기체계를 활용한 장기 소모전 방식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북한의 핵과 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 등에 현대전 변화 추세 반영 전망
 - ※ 최근 북한은 집속탄, 전자전 무기 및 탄소섬유탄 등 신형 무기체계 시험 평가를 하였는데¹¹⁴ 이는 중동 전쟁 등에서 드러난 현대전 변화 추세를 고려한 무기체계 시험일 가능성
 - 이란이 주변 GCC 국가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등 확전을 감행하고, 호르무즈 해협 등 지정학적 요충지를 장악함으로써 세계 경제를 마비시키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한 점도 북한의 군사전략 개발에 고려 사항이 될 전망
 - 이란의 모자이크 방어 전략(Mosaic Defense Strategy)이 장기전에 적합한 내구성을 보여준 바, 북한 역시 이러한 전략을 채택할 것인지 등도 관찰 필요¹¹⁵

- 중동전쟁을 계기로 K-방산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의 열세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
 - 북한의 핵 우위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고려하였을 때, 이번 중동전쟁이 한반도에서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군비통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

114 “국방과학연구기관들 중요무기체계들에 대한 시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6. 4. 9)

115 이란 모자이크 방어전략(Mosaic Defense Strategy)의 핵심은 지속력 제고를 위한 지휘통제체제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집중형 지휘통제체제를 가진 북한이 이를 어떤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 “The Soufan Center, “Iran’s ‘Mosaic Defense’ Strategy: Decentralization as Resilience Factor,” INTEL BRIEF (March 9, 2026), <https://thesoufancenter.org/intelbrief-2026-march-9a/>

다. 미중 간 전술적 데탕트와 한반도 대화 국면 전환 가능성

- 중동 전쟁이 미국 패권의 약화를 시사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미-중 간 전술적 데탕트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
 - 이미 미국은 2025 NSS와 2026 NDS에서 중국과의 전술적 데탕트 추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번 중동 전쟁은 미중 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
- 중동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은 중국에 바람직할 수 있으나, 미국의 지나친 약화가 초래할 수 있는 국제 정치·경제적 혼란을 중국은 더욱 두려워할 가능성
 - 미국 확장억제력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로 한국·일본 등이 핵 개발에 나서게 되거나, 정치·경제적 리더십을 상실한 미국이 군사력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중국은 원하지 않음¹¹⁶
 - 중국 역시 국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국과의 정면충돌보다는 갈등관리를 선호할 전망
 - ※ 최근 6년 7개월만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한 목적 가운데는 미중 정상회담 계기 한반도 관련 의제 관련 협의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 전력의 중동 재배치가 증가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전술적 데탕트가 필요할 가능성
 -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기회에 이란을 최대한 약화하고자 하는 상황
 - 이란과 그 추종세력(proxy) 및 중동 국가 간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중동 전쟁은 단기에 종식되기 어려울 가능성
 -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서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서도 관세, 희토류 등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중국과의 타협이 긴급

116 Zongyuan Zoe Liu, "What the Iran War Means for China: Beijing Fears American Volatility More Than American Power," *Foreign Affairs* (March 30, 2026),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what-iran-war-means-china>

- 중동 전쟁 발발의 파장을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은 금년 5월 미중정상회담보다는 2026년 하반기로 이동
 - 11월 중국에서 개최될 APEC과 12월 미국이 의장국을 맞는 G-20 정상회의는 물론 11월의 미국 중간선거 등 주요 정치적 이벤트를 계기로 미국이 북미관계에서 성과 도출을 시도할 가능성
 - ※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정책결정 스타일을 고려할 때,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격적 방북을 통해 북미 간 직접 대화 시도 가능성도 상존
 - 중간선거 계기 혹은 중간 선거 패배로 대외적 성과 창출이 필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관계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가능성

-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미국 측의 유인책 제시가 긴요
 - 북한은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미대화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황이나,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주문하는 등 미국이 대답할 차례라는 입장
 - ※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9차 당대회 보도, 2026. 2. 26)

참고문헌

민경락, “美부통령 ‘이란 안바뀌면 사용한 적 없는 수단 쓸 수도,’” 연합뉴스 (2026년 4월 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7160351109>

박치병, “미국-이란 군사 충돌이 흔드는 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LoTIS (2026년 3월 31일), <https://www.kmi.re.kr/lotis/news/6016>

연합뉴스, “IEA 사무총장 ‘이란 전쟁,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기,’” 연합뉴스 (2026년 3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1016900009>

현윤경, “유럽인들 ‘중국보다 미국이 더 위협,’” 연합뉴스 (2026년 4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60409165400098>

Abi McGowan, Molly Carlough, and Natalie Caloca, “A Guide to Trump’s Second-Term Military Strikes and Ac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uary 13, 2026), <https://www.cfr.org/articles/guide-trumps-second-term-military-strikes-and-actions>

Al Jazeera Staff, “US-Iran Talks Conclude With Claims of Progress but Few Details,” Al Jazeera (February 26, 2026), <https://www.aljazeera.com/news/2026/2/26/us-iran-talks-conclude-claims-progress-few-details>

Andrew Leber and Sam Worby, “Three Scenarios for the Gulf States After the Iran Wa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April 16, 2026), <https://carnegieendowment.org/emissary/2026/04/gulf-states-gcc-iran-war-three-scenarios>

Armed Conflict Location & Event Data Project (ACLED), “Middle East Special Issue: March 2026,” ACLED (March 4, 2026), <https://acleddata.com/update/middle-east-special-issue-march-2026>

Atlantic Council Experts, “Twenty Questions (and Expert Answers) About the Iran War,” Atlantic Council (April 2026), <https://www.atlanticcouncil.org/dispatches/twenty-questions-and-expert-answers-about-the-iran-war/>

Bernard Haykel, “The Implications of Iran’s Failed Proxy Strategy”, Hoover Institution (December 10, 2024), <https://www.hoover.org/research/implications-irans-failed-proxy-strategy>

- Carley Welch, “How Cyber Command Contributed to Operation Epic Fury Against Iran,” Nextgov/FCW (March 2, 2026), <https://www.nextgov.com/cybersecurity/2026/03/how-cyber-command-contributed-operation-epic-fury-against-iran/411818/>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3.7 Billion: Estimated Cost of Epic Fury’s First 100 Hours,” CSIS (March 5, 2026), <https://www.csis.org/analysis/37-billion-estimated-cost-epic-furys-first-100-hours>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A Closer Look at the Yelabuga UAV Factory,” CSIS (March 2026), <https://beyondparallel.csis.org/a-closer-look-at-the-yelabuga-uav-factory/>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Iran’s Conflict With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CFR Global Conflict Tracker (2026),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confrontation-between-united-states-and-iran>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U.S. and Iran Make Indirect Contact on Potential Talk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March 24, 2026), <https://www.cfr.org/articles/u-s-and-iran-make-indirect-contact-on-potential-talks>
- Dave Boyer, “Timeline at a Glance: From 2015 Iran Nuclear Deal to 2026 U.S.-Israel Military Operations,” The Washington Times (March 2, 2026),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6/mar/2/timeline-glance-2015-iran-nuclear-deal-2026-us-israel-military/>
- David Ignatius, “The Iran War Is a Hostage Crisis,” The Washington Post (March 31, 2026),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6/03/31/iran-war-hostage-crisis/>
- Defense Express, “Over 850 Tomahawks in Month: U.S. Faces Rapid Depletion of Cruise Missile Stockpiles,” Defense Express (March 29, 2026), https://en.defence-ua.com/analysis/over_850_tomahawks_in_a_month_us_faces_rapid_depletion_of_cruise_missile_stockpiles-17991.html
- DAWN, “‘All Roads Lead to Higher Prices and Slower Growth’: IMF Says Iran War Is Dimming Outlook for Many Economies,” DAWN (March 30, 2026), <https://www.dawn.com/news/1986884>
- Eve Sampson, “Iran War May Force US to Shift Missile Defenses From South Korea,” Military Times (March 11, 202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6/03/11/iran-war-may-force-us-to-shift/>

- George Headley, "U.S. Missile Supply Stressed by Iran War," Cronkite News (March 27, 2026), <https://cronkitenews.azpbs.org/2026/03/27/missile-stockpile-depleted-iran-war/>
- Goldman Sachs, "Iran Conflict: How Long, and How Bad?," Goldman Sachs (March 23, 202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top-of-mind/iran-conflict-how-long-and-how-bad/>
- Goldman Sachs, "How the Iran War Is Impacting Investment Portfolios," Goldman Sachs (March 27, 2026), <https://www.goldmansachs.com/insights/articles/how-the-iran-war-is-impacting-investment-portfolios/>
- Gulf News Report, "US-Iran Ceasefire: Vance Says No Agreement With Iran After Historic Peace Talks in Pakistan," Gulf News (April 12, 2026), <https://gulfnews.com/world/asia/pakistan/us-iran-ceasefire-vance-says-no-agreement-with-iran-after-historic-peace-talks-in-pakistan-1.500503998>
- Holly Ellyatt, "Oil Jumps as Iran-Israel-US Conflict Escalates: Trump and Netanyahu Signal What Comes Next," CNBC (March 2, 2026), <https://www.cnbc.com/2026/03/02/iran-israel-us-conflict-oil-jumps-trump-netanyahu-what-is-next.html>
-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 "Iran Update Special Report, March 27, 2026," ISW (March 27, 2026), <https://understandingwar.org/research/middle-east/iran-update-special-report-march-27-2026/>
- J.D. Simkins, "U.S. Confirms First Combat Use of LUCAS Drone," Military Times (February 28, 202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6/02/28/us-confirms-first-combat-use-of-lucas-one-way-attack-drone-in-iran-strikes/>
- Jewis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of America, "Iran's Missile Launches Have Fallen Sharply Since Start of War," JINSA (March 10, 2026), <https://jinsa.org/irans-missile-launches-have-fallen-sharply-since-start-of-war-data-shows/>
- John Irish and Steve Holland, "Trump Threatens NATO Exit, Scaling Up Tensions With Allies," Reuters (April 1, 2026), <https://www.reuters.com/business/aerospace-defense/trump-threatens-nato-exit-scaling-up-tensions-with-allies-2026-04-01/>
- Katharine Jackson and David Brunnstrom, "A Look at the Long, Fraught Timeline of Iran Nuclear Tensions," U.S. News & World Report (February 24, 2026), <https://www.usnews.com/news/us/articles/2026-02-24/a-look-at-the-long-fraught-timeline-of-iran-nuclear-tensions-as-talks-with-us-loom>

- Leonard Schütte, “The European Pillar in NATO: From Hollow to Concrete,” Heinrich Böll Foundation (March 2026), https://www.boell.de/sites/default/files/2026-03/boell-paper_the-european-pillar-in-nato.pdf
- Marc Weller, “With Iran Attacks, President Trump Is Making the Use of Force the New Normal,” Chatham House (March 1, 2026), <https://www.chathamhouse.org/2026/03/iran-attacks-president-trump-making-use-force-new-normal-and-casting-aside-international>
- Mark Mazzetti et al., “How Trump Decided to Go to War With Iran,” The New York Times (March 2, 2026), <https://www.nytimes.com/2026/03/02/us/politics/trump-war-iran-israel.html>
- Miranda Jeyaretnam, “The U.S. and Israeli War With Iran, Explained,” TIME (March 5, 2026), <https://time.com/7382631/iran-israel-us-war-explainer-trump-middle-east/>
- NPR Staff, “U.S. and Iran Fail to Reach Deal After Peace Talks in Pakistan,” NPR (April 11, 2026), <https://www.npr.org/2026/04/11/nx-s1-5781760/pakistan-peace-talks-us-iran>
- Reuters, “Strait of Hormuz Situation Is an Argument for Strong International Maritime Coalition,” Reuters (April 13, 2026), <https://www.reuters.com/world/strait-hormuz-situation-is-an-argument-strong-international-maritime-coalition-2026-04-13>
- Rory Miller, “Navigating Rocky Waters: GCC Strategies for Maritime Security,” Middle East Council on Global Affairs (November 26, 2025), <https://mecouncil.org/publication/navigating-rocky-waters-gcc-strategies-for-maritime-security/>
- Stephen Collinson, “Analysis: Trump’s Iran Negotiations Face Deep Challenges,” CNN (February 6, 2026), <https://edition.cnn.com/2026/02/06/politics/iran-us-negotiations-trump-analysis>
- The Wall Street Journal, “‘Stagflation Alarm Bells’: Iran War Is Already Hitting the Global Economy,” WSJ (March 24, 2026), <https://www.wsj.com>
- U.S. Central Command, “U.S. Forces Issue Safety Warning to Civilians in Iran,” CENTCOM (March 8, 2026), <https://www.centcom.mil>
- U.S. Department of Defense, “Operation Epic Fury Fact Sheet,” DoD (March 3, 2026), <https://media.defense.gov>
- World Economic Forum, “Iran Conflict Disrupts Oil and Gas Supply,” WEF (March 20, 2026), <https://www.weforum.org>
- Zachary B. Wolf, “Why the U.S.-Iran Talks Failed,” CNN (April 11, 2026), <https://edition.cnn.com/2026/04/11/middleeast/us-iran-talks-failure-analysis-intl-hnk>

Abstract

The Middle East War and the Global Polycrisis: Assessment and Implications

Yonghwan Choi · Yunhee Kim · Seho Jang · Sung Hoon Lee · Byung Ok Ahn · Il Seok O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is report examines the Middle East War—triggered by the United States and Israel’s preemptive strikes on Iranian soil on February 28, 2026—as a conflict that transcends regional boundaries and precipitates structural transformations across international politics, military affairs, economics, and emerging security domains. Drawing on an analysis of the war’s causes and trajectory, the report derives comprehensive implications across these four dimensions and advanc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with respect to military security, the report calls for: enhancing defensiv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s asymmetric threats; securing the military innovation and force structure necessary to underpin such capabilities; and elevating the Republic of Korea’s strategic autonomy. Second, on energy and economic security, the report recommends: restructuring the national energy mix; diversifying supply chains;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inter-agency body—tentatively designated the Energy Security Commission. Third, in the domain of emerging security, the report identifies the following as priority imperatives: strengthening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on democratic resilience; leading international norm-setting and governance discuss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enhancing capacity to counter influence operations and cognitive warfare; and reinfor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defense industry ecosystem. Finally, from a Korean Peninsula perspective, the report argues that in order to navigate the growing tension between alliance entrapment and abandonment in an era of normalized conflict,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should accelerate the repatria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as a near-term objective within the current presidential term. In parallel, given the ripple effects of the Middle East War, the report recommends recalibrating the anticipated inflection poi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e second half of 2026 and undertaking the requisite groundwork accordingly.

Keywords: United States, Iran, Middle East War, Security, International Orde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INSS

전략보고

April 2026
No. 379